

# 성도의 빛 8

1988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8월호 별책 부록 : 성도의 빛 어린이란

# 성도의 빛

1988년 8월호

“교회 잡지인 성도의 빛은 엔사인, 뉴 이라 및 프렌드의 기사를 다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대관장단 : 에즈라 태프트 벤슨, 고든 비  
링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십이사도 평의회 :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즈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우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런.

고문 : 휴 더블류 피녹크, 진 알 쿡,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키드 더블류 윌콕스.

통 권 : 제267권, 제24권, 제8호  
등 록 : 1967년 10월 5일, 라-3166  
발행일 : 1988년 8월 1일(월간지)  
발행인 : 한 인 상  
편집인 : 정 기 만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우체국 온라인 010041-0024704-11

인쇄인 : 영인쇄주식회사 이 세 용  
International Magazine PBMA8808KO  
PRINTED IN KOREA 8/88  
©1988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Published monthly by the Corporation of the  
President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Application to mail at  
second class postage rates is pending at Salt  
Lake City, Utah. Subscription price \$9.00 a  
year. \$1.00 per single copy.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Church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Subscription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531-2947.

POSTMASTER: Send form 3579 to  
Songdo-ui Pot a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성도의 빛 1년 구독료는 4,000원입니다. 권당  
400원이며, 성도의 빛 해외 구독일 경우에는  
우송료를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한국  
출판부(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지 : 노아가 방주로 들어오는 동물들을 맞아들이는  
모습을 그린 클라크 켈러 프라이어의 유화 “주께서 모든  
말씀을 이루시니”는 교회 역사 및 미술 박물관에서  
주관한 국제 순수 미술 대회에 많은 출품작의 하나이다.  
이번호의 “미술 작품의 풍부한 수확” 참조

##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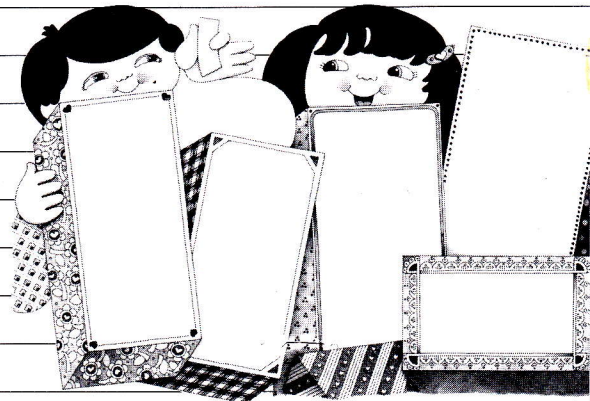
- 2 대관장단 메시지 :  
풍요한 삶을 찾아서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 8 슬픔과 기쁨 : 리하이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 키드 케이 힐
- 13 가족을 위한 지침 :  
성전 엔다우먼트를 위해 준비함
- 18 방문 교사 메시지 :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 19 미술 작품의 풍부한 수확
- 23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문 교사로부터 멜린다 셔트너
- 25 자기가 쓰는 언어 산드라 윌리암스
- 29 자미 산드라 시 브링리
- 34 성신의 동반하심 칼로스 이 애시 장로
- 39 벤슨 대관장이 우리집을 방문함 조지 디 듀란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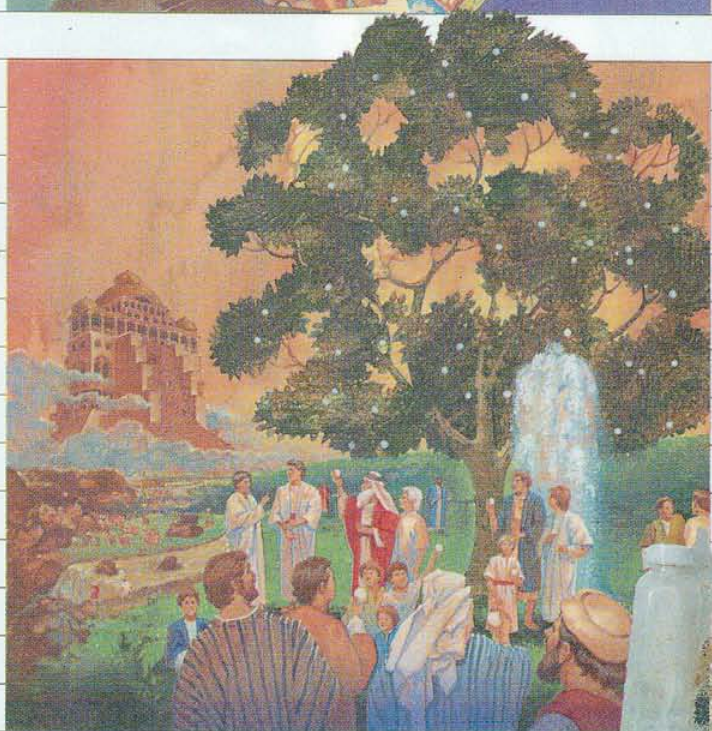
## 청소년란

- 40 아빠의 메시지 제이 엘 패커드
- 42 알 수 없었던 친부모 줄리 더너웨이
- 48 눈보라 속에서 얻은 교훈 로널드 제이 던

## 성도의 빛 어린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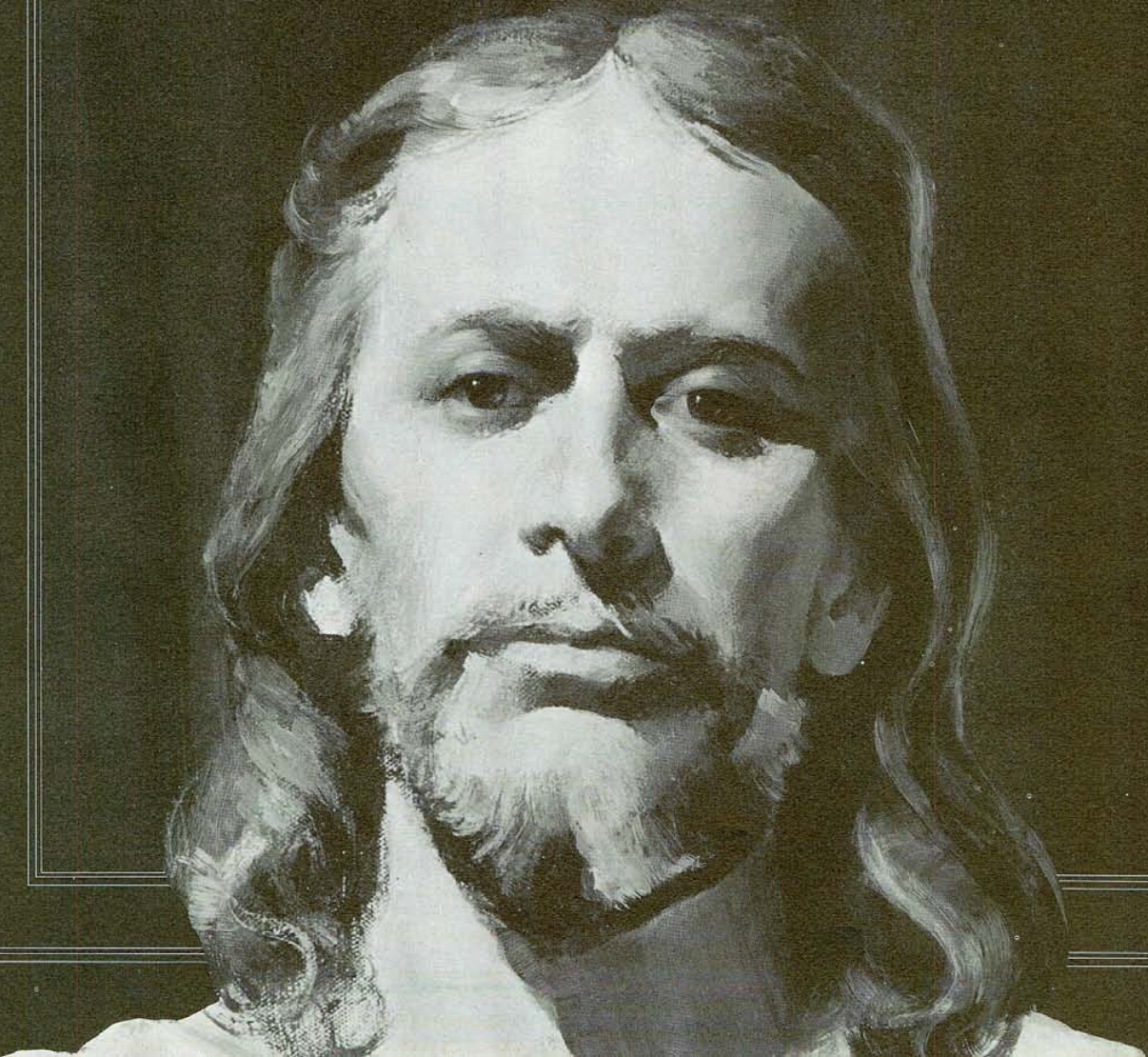
- 2 나의 형제에게 평화를 니나 루이스
- 5 심심풀이 로버타 페어럴
- 6 일요일 상자 버지니아 에이치 피어스와 캐드린 에이치 반스
- 8 경전 이야기 :  
불기둥





대관장단 메시지

풍요한 삶을  
찾아서



**오**늘날 우리는 각자 얼마나 멋진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옛날의 항해사와 탐험가들이 미지의 세계를 찾아 나선 것과 같을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의 탐험가가 되어, 보다 나은 생활 방식과 행동 양식을 찾아 내어 이 세상을 더 좋은 곳이 되게 하고자 하는 소망을 품고 따를 수 있습니다.

지구의 표면이 되었든, 광대한 우주에서나 또는 의로운 생활 원칙에 관한 것이든, 탐험 정신은 어려움을 용기로, 실망을 즐거운 마음으로, 승리를 겸손함으로 당해 내는 능력을 키워 나가는 것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미완성의 세계를 남겨 놓아 인간이 그 위에서 능력을 발휘하여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전기는 구름 속에, 기름은 땅 속에 묻어 두셨습니다. 강에는 다리를 놓지 않고, 삼림은 자르지 않은 채, 도시도 세워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쉽고 편안한 완성 제품이 아니라, 원재료를 다루는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는 그러하지 않은 그림과, 불리어지지 않은 노래와,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남겨 놓으셔서, 인간이 창조의 기쁨과 영광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난 반 세기 동안, 우리 인생의 여러 면에서 높은 표준으로부터, 점진적이나 계속적으로 후퇴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사업에 도덕성이 결여되고, 과학에 인간성이 결여되며, 특성없는 지식과, 희생을 치르지 않는 예배, 양심이 결여된 즐거움, 원칙없는 정책, 일하지 않고 부를 축적하는 예를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유명한 영국의 작가 찰스 디킨스는 2세기 전에 말을 했을 때, 자신도 깨닫지 못한 사이에, 우리 시대를 묘사했던 것입니다. 그의 고전, 두 도시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최고의 세월이요; 또한 최악의 세월이었다. 지혜와 우둔의 시대요, 신앙과 불신앙의 기간이요, 광명과 암흑의 계절이요, 희망의 봄이요, 절망의 겨울이기도 하였다. 우리들 앞에는 온갖 것들이 갖추어져 있었고, 또한 우리들 앞에는 아무 것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삶의 즐거움과 쾌락과 안전에 의해 인생의 선을 측정하는 것은 그릇된 표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풍요한 삶이란 끝없는 사치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상업적으로 만들어진 쾌락을 기쁨과 행복으로 잘못 받아들여 스스로 만족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자기를 이겨 내고, 봉사하는 데서 기쁨을 찾는 것—이러한 것이 풍요한 삶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개별적으로 토론해 본다면, 이와 같이 가장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 율법에 순종함

온갖 가능한 혼란기 속에서도 인류를 인도해 온, 유명하게 존중되어 온 행위 규범을 살펴 봅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도 오늘날의 우리에게 말해 주는 시내산에서 울려 오는 음성의 메아리를 듣는 듯 여기게 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찌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찌니라

간음하지 말찌니라

도둑질하지 말찌니라

거짓 증언하지 말찌니라

탐내지 말찌니라(출애굽기 20:3~4, 7~8, 12~17 참조)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고 나서 많은 세월이 흘렀을 때, 절정의 때에 이르러, 큰 엔다우먼트가 일어났으니—그것은 무기보다 더 강한 세력이요, 가이사의 돈보다 더 영구한 재물이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주께서 율법의 원리에 사랑의 개념을 더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탐색해 내는 율법사의 예리한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러분은 거룩한 대답을 생각하십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마태복음 22:36~39)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것을 범하면 우리는 영원한 결과로 고통받게 됩니다. 그에 순종하여 영원한 기쁨을 거둡시다.

국법에 순종함을 무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를 구속하기보다는 우리의 자유를 보장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며, 우리에게 소중한 모든 것을 안전하게 지켜 줍니다.

다른 영예로운 사람들이 법을 왜곡시키고, 곡해하고, 위법 행위를 자행하며, 범죄 행위가 처벌되지 않고, 법적으로 권고된 형량이 채워지지 않고, 무책임하고 불법적인 행위가 이전에 기록된 어떤 것을 초월하는 우리 시대에 정직한 사람들이 법을 지킬 때 법이 제시해 주는 기본적인 정의로 되돌아가는 것이 진정 필요합니다.

내가 사업계에서 경험한 것이 있으므로, 나는 경제 법칙에 순종함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개인이든지 회사든지 계속해서 그들이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면서, 건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 법칙은 국가와 인간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경제적인 결정이 법보다는

# 을

법에 순종함

유명하게 존중되어 온 행위 규범을 살펴 봅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도 오늘날의 우리에게 말해  
주는 시내산에서 들려 오는 음성의 메아리를  
듣는 듯 여기게 됩니다.

# 다

큰 사람을 존중함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찌니라”



#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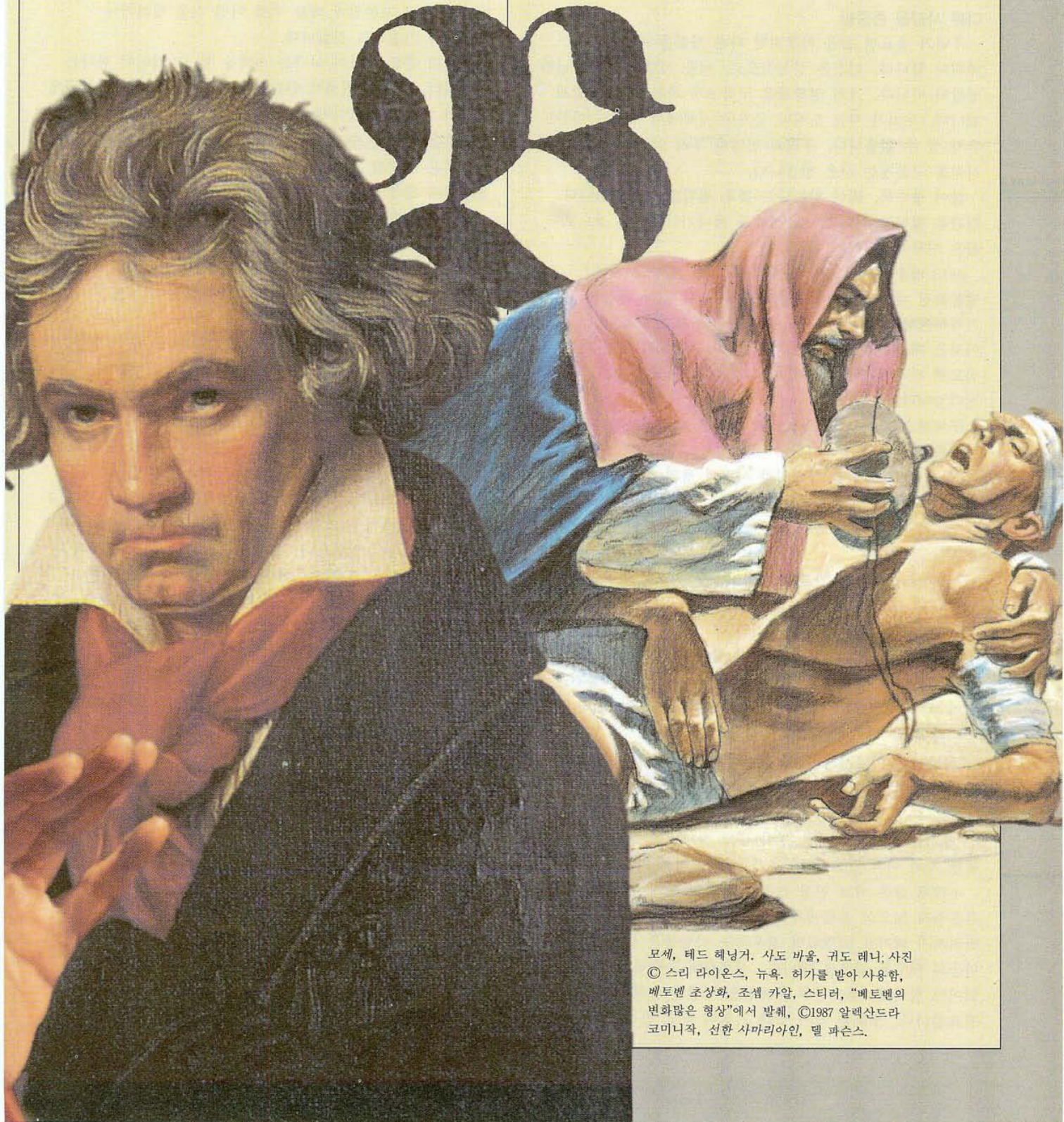
기를 이겨냄

역사는 위대함을 향해 계속 나아간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독일의 위대한 작곡가, 루트빅 폰 베토벤은 완전히 귀머거리가 된 후에도 작곡을 계속했다.

# 봉

사하는 기쁨

인간이 이웃을 섬기 데 자기 자신을 바치기까지는 아무도 삶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모세, 테드 헤닝거, 사도 바울, 귀도 레니; 사진  
© 스티 라이온스, 뉴욕. 허가를 받아 사용함,  
베토벤 조상화, 조셉 카알, 스티러, "베토벤의  
변화많은 형상"에서 발췌, ©1987 알렉산드라  
코미니작, 선한 사마리아인, 델 파슨스.

이론에 토대를 둘 때, 우리는 혼란을 맛보게 됩니다.

어떤 현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법이란 생명의 게임을 하는 규칙이다.” 실재에 있어서, 그것은 훨씬 더한 것입니다; 올법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풍요한 삶을 추구하는 데서 성공하려면 필수적인 요구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 다른 사람을 존중함

우리가 풍요한 삶을 이루려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이웃 사람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의 영광만을 구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나 국가나 세계에서 우리는 아무도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번영과 우리 이웃의 가난 사이를 구분짓는 선은 없습니다.

많이 줄수록, 많이 받는다는 것은 변함없는 법칙입니다. 인간은 벌어들이는 것으로 생계를 해나가나, 주는 것으로 삶은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장로들을 훈계할 때,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찌니라”(사도행전 20:35)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우리들이 깨닫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오한 진리입니다. 그 위에, 그것은 매우 실제적인 진리입니다.

구체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부유한 어리석은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누가복음 12:15~21)

우리의 삶은 서로 진정 존경받을 때 복받게 됩니다. 특히 결혼하지 않았던 분들에게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원한 반려자가 되기를 희망하며 결혼하는 사람들은 특정한 능력과 마음의 태도를 필요로 합니다. 상호간에 능숙하게 적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호간의 문제점을 해결할 능력이 필요합니다. 조화를 찾기 위해 기꺼이 주고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위해 스스로 바라는 것을 맞바꿀 것까지 생각하는 최고의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존경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풍요한 삶의 일부입니다.

### 자기를 이겨 냄

인간의 품성을 가장 확실하게 시험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그의 자존심에 해를 끼칠 어떤 것을 행하거나 말하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필요 사항의 하나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간은 사물과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또한 산다는 것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임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점은 인생의 정상적인 부분이며, 위대하다는 것은 문제점에 정복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제심을 위한 투쟁은 인간에게 조금 상처도 주고 해를 입히기도 하지만, 항상 인간을 더 훌륭하게 만들어 줍니다. 자제심은 아무래도 엄격한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아무런 노력도 고통도 받지 않은 채 그것을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력을 하지 않고,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을 하지 않은 데 대한 변명을 늘어 놓습니다. 우리는 불만어린 말을 하는 것은 들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려서 받았던 이점을 나는 받지 못했어요.” “나는 신체적인 불구자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신체적인 불구자로 위대하게 된 사람들의 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위대한 시인, 호머[주전 850년?], 영국 작가 존 밀튼(1608~1674), 그리고 미국의 역사 학자 윌리엄 프레스코트(1796~1859)는 훌륭한 변명거리를 갖고 있었으니, 그들은 장님이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웅변가로 손꼽히는 아데네인 데모스테네스(주전 385?~주전 322)는 더 할 수 없는 변명거리가 있었으니, 그의 폐는 약하고, 음성은 거칠고 음치인데다, 말도 더듬었습니다. 위대한 독일의 작곡가 루트빅 폰 베토벤(1770~1827)은 완전히 귀가 먹은 후에도 계속 작곡을 했습니다. 그들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좋은 변명거리를 갖고 있었을지라도, 그들은 결코 그러한 변명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점점 빠른 속도로 움직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성취는 환상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의약품의 진보는 굉장하며 지구 내부와 우주 외계의 비밀의 시험은 인간에게 놀라움과 경외감을 갖게 합니다.

과학 중심의 시대에 사는, 우리는 우주는 정복할 수 있으나 자신은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적인 평안을 포기합니다.

현대 과학을 통해서, 인간은 굉장한 속도로 우주를 날고 소리없이 힘들이지 않고 핵 잠수함으로 물 속을 헤치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이제 인간은 새처럼 날 수 있고 물고기처럼



해엄칠 수 있으나, 나는 인간이 인간답게 땅 위를 걸어다닐 줄 알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우주 탐험이 놀라운 것인 만큼, 지상에서 이루어 낸 것도 그에 못지 않게 뚜렷합니다. 컴퓨터를 예로 들자면, 타임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컴퓨터는 사업계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과학과 의학 분야에 새로운 기회를 제시해 주었으며, 교육 방법을 변화시켰으며,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이러한 기계가 가감승제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언젠가는 생각할 수도 있으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대답은 분명히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컴퓨터는 인간의 생각하는 과정에서 진보된 것이지만, 그것은 복천년의 상징도 아니요, 인간의 뇌에 대항하는 대단한 경쟁자도 되지 못합니다.

인간은 가장 복잡한 기계를 고안해 낼 수 있으나, 그 기계에 생명을 부여해 줄 수도 없고, 이성과 판단의 능력도 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거룩한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전에 컴퓨터를 만드셨으니, 모든 과학자의 노력을 결합한 것을 초월하는 무한한 돌보심과 정밀함으로 그것을 조립하셨습니다. 진흙을 사용하여 본체를 지으신, 그분은 시각과 청각과 촉각으로 온갖 종류의 정보를 계속 수집하는 시스템을 그 안에 설치했으며, 모든 통로가 항상 깨끗하게 작용해 나가도록 하는 순환계를 장치하시고, 소화 기관을 통해 힘과 정력을 내게 하시고, 모든 부분을 항상 교류시키고 조정시키는 신경 계통도 마련하셨습니다. 예뉘 동산에 누여진, 그것은 가장 훌륭한 현대의 컴퓨터를 훨씬 능가하는 것이었으며,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것은 기억하고 계산해 내고 가장 복잡한 방정식도 풀 수 있게 설비되어 있었으나, 무언가 빠져 있었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 서시어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창세기 2:7)

이런 이유로 인간은 현대의 컴퓨터가 소유하고 있지 못하고 또는 앞으로도 소유하지 못할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으며 그와 더불어 생각하고 분별하고 결정을 내리고 사랑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진 그러한 능력으로, 자신을 이겨낸다는 것은 우리가 풍요한 삶을 갖고자 한다면 필수적인 것이 됩니다.

### 봉사하는 기쁨

참된 행복을 찾으려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 자신 밖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웃을 섬기는 데 자기 자신을 바치기까지는 아무도 삶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의무적인 것이라 해도, 그것을 성취하는 것은 참된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청소년에게 봉사하는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경우, 한 가지 경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은 비판은 적게 받고 훌륭한 모범은 많이 받을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 백 년 후에는 우리가 어떤 종류의 집에 살았으며, 은행에 얼마나 많은 돈을 저축해 두었는지, 어떤 모습의 옷을 입고 있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어린 소년과 소녀의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세상은 좀더 좋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한스 셀레이 박사는 현명하게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부나 세력이나 기타 여하한 힘의 도구가 아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있음을 아는 데 있다.”(삶의 스트레스, 뉴욕: 맥그로우 힐, 1956, 287페이지)

이것은 봉사를 통해서 오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받은 교육과 경험과 지식은 숨겨져 사용되고 도구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얻은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양심과 사랑과 신앙은 우리의 운명을 이끌어 나가는 정교하고 귀중한 도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율법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신을 이겨내며, 봉사하는 데서 기쁨을 찾음으로써 풍요한 삶을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과정에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이 행하는 가운데, 풍요한 삶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강조 사항: 가정 복음 교육에서 다음 사항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1. 어떤 사람들은 즐거움과 쾌락과 사치로 풍요한 삶을 잘못 측정하고 있습니다.
2. 참으로 풍요한 삶의 기쁨과 행복은 율법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신을 이겨 내며, 봉사의 기쁨에서 찾게 됩니다.
3. 이 기사에서 토론된 원리대로 생활하는 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화를 우리 생활에 가져다 줍니다.

### 토론시 유의 사항

1. 생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찾는 것에 관해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느낌을 말한다.
2. 이 기사에서 가족이 큰소리로 읽고 토론할 수 있는 성구나 인용문이 있는가?
3. 방문하기 전에 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이 토론이 좀더 나아질 수 있겠는가? 정원회 지도자나 감독의 메시지가 있는가?



# 슬픔과 기쁨 :

리하이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

## 키드 케이 힐

여러 해 전에 친한 친구를 찾아간 일이 있었는데, 나는 그가 유난히 실의에 차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학교 교사이며, 그의 아내는 집안 일을 돌본다. 자녀가 아홉 명에, 그들은 재정 형편이 그다지 넉넉치 못했다.

나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말하고 싶지 않은 듯, 주저했다. 그러나 결국, 눈에 눈물을 가득 머금은 채, 그는 가족에 관한 걱정거리를 내게 말했다. 그의 한 아들은 고등학교에서 퇴학당하고 집에서 나가, 지금은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며 패거리들과 어울려 다니고 있었다. 친구의 열 여덟 살 난 딸은 범법을 하고 성전 밖에서 결혼할 것을 계획했다. 그의 열 여섯 살 난 아들은 심각한 마약과 알콜 문제를 갖고 있었다. 그 친구의 맏아들은 선교 사업을 행하고 있었으나, 열 여섯 살 난 아들의 중독 치료비는 선교 사업 기금과 가족의 재정적인 안정을 위협했다.

나의 친구는 죄의식과 합당치 못함을 느꼈다고 내게 말했다. 가족의 잡다한 문제로, 그와 그의 아내는 자녀 문제에 대하여 서로 비난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결혼 생활은 상당한 긴장 상태하에 있었다. 그가 복음 생활을 하고자 노력해 왔음에도, 이러한 모든 일이 그의 가족에게 일어나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풀지 못한 채 그는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대부분의 말일성도들은 행복을 기대하며 열심히 복음의 길을 출발한다. 그런데, 그들은 예기치 못한 문제점이나 어려움에 휩싸이게 됨을 알게 된다. 그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괴로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들이 맺은 언약에서 떨어져 나간다. 그런가 하면 신앙을 잃고 죄의 고통으로부터 구제되기를 구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들 중에서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겪은 리하이의 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리하이는 주님께서 그에게 지정해 주신 모험의 세계로 열심히 들어갔다. 그러나 여러 해 후에, 그는 그가 광야에서 당한 고통과 마음의 아픔을 이렇게 표현했다. “막내 아들 요셉아,

내가 네게 이르노라. 너는 내가 광야에서 환난을 당할 때 태어났으며, 나의 슬픔이 한없이 컸던 날에 너희 모친이 너를 낳았느니라.”(니파이서서 3:1)

리하이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은 “환난의 광야”라고 할 수 있는 상황에 그들 스스로 처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들은 대체로 그들이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떨어지게 된다. 그들은 평안을 바라지만, 다만 실망을 느낄 뿐이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은 우리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는 이렇게 제언했다. “인간의 위대성은 인생에서 완전히 불공평하고, 부당하고, 합당치 않게 생각되는 일이 발생할 때 어떻게 잘 대처해 나가느냐에 의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성도의 벗, 1985년 1월호, 23페이지)

### 리하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바르게 출발해야 한다

리하이는 예루살렘에 그 자신과 그의 가족을 위한 안락한 집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과 영혼은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물질적인 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그에게 주어진 사랑을 생각하면서 느낀 기쁨과 희망보다는 훨씬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그 사랑은 그의 영혼에 달콤한 열매와도 같은 것이었다.

인간이 바르게 출발하여 그대로 나아가면, 그는 대체로 바르게 끝을 맺게 된다. 인간이 그릇되게 출발하여, 그대로 지속해 나가면, 그는 끝에 가서 그릇되게 된다. 리하이는 올바르게 시작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그의 죄를 회개하고, 위선을 행하지 않았다. 회개는 그에게 용서와 성신의 동반하심을 가져 왔다. 그때까지 의롭게 생활해 온, 리하이는 “환난의 광야”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었다.

### 리하이는 신앙과 감사의 생활을 했음

리하이가 광야로의 여행을 단행한 것은 주님을 믿는 신앙의 행위였다. “부친이 광야로 떠났으니, 집과 상속의

땅과 금은 보화를 모두 남겨 두고 다만 가족을 이끌고 양식과 천막만을 가지고 떠나 갔느니라.”(니파이일서 2:4)

사흘 동안 광야를 여행한 그 가족은 강가의 계곡에 멈추어 천막을 쳤다. 여기서, 이런 구절을 읽어 보자. “리하이는 돌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며 주 하나님께 감사드렸느니라.”(니파이일서 2:6~7) 리하이는 광야에서 여행하는 동안, 항상 주님을 기억했으며 그의 계명을 지키고자 했다. 그는 어떤 장소나 처지에 처해 있든,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경배했으며, 주님의 자비와 축복에 대하여 감사드렸다. 어떤 사람들은 리하이를 망령이 든 노인쯤으로 생각할지도 모르나,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었느니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다.(로마서 8:28 참조)

#### 가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리하이의 시현

리하이가 출발을 바르게 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지녔으나, 그는 고통에서 제외되지는 않았다. 그가 감사의 희생 제물을 바쳤을 때에도, 레이맨과 레뮤엘은 그에게 “환상에 사로잡혔다느니라” 하며, 대들고 불평했다. “상속의 땅과 금은 보화를 남겨 둔 채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에서 저희를 죽게 하겠다 하여 부친께 여러 가지로 불평을 토하였으며, 부친의 어리석은 망상이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이라고 말하였느니라.”(니파이일서 2:11)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레이맨과 레뮤엘은 그들 부친의 말씀을 거부했다.

리하이도 돌로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었다. 그도 감정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가족의 사랑과 지지를 필요로 했다. 그는 친구들과 혼자 맞서 왔으나, 위의 두 아들의 반항은 그에게 깊은 감정의 고통을 안겨 주었던 것이다.

리하이는 힘들여 큰 아들들의 의구심을 진정시켰으며 그들을 설득시켜 니파이와 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 낫쇠판을 가져 오게 했다. 그들이 돌아오는 시간이 지체되자, 아들이 죽은 것으로 생각한 새라이아 역시 리하이에게 어리석은 노인이라면서 불평했다: “당신은

상속의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 내시었고 이제는 아들마저 잃었으니, 필경 우리가 광야에서 죽겠나이다.”(니파이일서 5:2)

우리가 믿고 의지해 온 배우자가 논쟁과 오해로 우리에게서 떠날 때처럼 고통스러운 것은 없는 법이다. 리하이도 그의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했으며 그들도 그가 해왔듯이 하나님의 방법을 알기를 원했다. 아들이 반항하는 것을 보는 것만도 몹시 고통스러웠을 터에, 아내마저 똑같은 비난과 두려움을 표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리하이를 한층 더 고통스럽게 했을 것이다. 그러한 순간은 두려움과 의심으로 더욱 어두워져,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와 하나님에 대해서까지도 의문을 품게 될 수 있다.

그 고통속에서, 리하이도 하나님으로부터 쉽사리 등을 돌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향했다. 그 후에 그는 우리가 오늘날 “리하이의 시현”이라고 하는 것을 받았다. 이 시현에서, 리하이는 그의 자녀들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었음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그와 하나님께 기억하여, 주님의 영을 잃을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을 믿고 그가 한 대로 복음의 귀중한 열매를 맛볼 수도 있다. 선택은 그들의 것이었다.

그 사실을 이해한다고 해서 리하이가 느꼈던 고통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어떤 죄악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생활에 개입되는 그의 선하심과 관계하심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리하이의 경험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승영하기에 알맞은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고난과 고통을 택하셨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 신앙의 시련을 겪었던 존 테일러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한 말을 상기시켜 주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참을 수 없다면 하나님의 해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설교집, 24:197)

우리 시대에,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침을 알았다. 그는 이렇게 말씀했다. “슬픔과 비극과 가슴아픈 일이 우리 생활에서

니파이가 활을 부러뜨려, 가족은 굶주림에 처하게 되었고, 리하이도 불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주님의 꾸지람을 들은 후,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활을 부러뜨린 후 고기를 들고 돌아오는 니파이”, 콜마크 펠리 프레이스 그림.

일어날 때, 하나님의 속삭이는 음성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가?’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십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화평스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평강은 두려움의 반대되는 것입니다. 평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한 가지 축복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의로움을 통하여서 확립됩니다.”(성도의 빛, 1986년 1월호, 73페이지)

#### 리하이가 노력을 계속함

철은 열을 가했다 식히고, 다시 열을 가해 더욱 강해지듯이, 승영에 오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도 역경의 불에 시달리고 물 속에서 단련되는 과정을 되풀이하게 된다.

리하이는 자신이 약속의 땅을 물려받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으나, 그러면서도 그는 투쟁과 슬픔과 고통을 받았다.

니파이가 활을 부러뜨려 여러 날 동안 굶주림의 위협을 받게 되자, 레이판과 레뮤엘 그리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은 화를 냈다. 리하이조차 주님에게 불평하기 시작했다. 자녀들의 불평, 피로, 노령, 끝없이 방황하는 세월, 그리고 굶주림의 위협은 그의 영혼을 시달리게 했다.

주님은 리하이의 불평에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주의 음성이(리하이에게) 임하셨으나, 주께 불평한 일로 하여 주로부터 책망을 받아 (그는) 깊은 비탄에 잠기시더라.”(니파이일서 16:25) 주님의 책망을 받은 후, 리하이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그는 다시 힘을 모아 신앙으로 나아갔다.

바운티플 땅에서 잠시 머문 후에, 리하이의 가족은 바다를 향해할 배에 올라 탔다. 배에 오른 리하이는 몇몇 자녀의 행위로 다시 마음의 고통을 맛보게 되었다. 레이맨과 레뮤엘 그리고 이스마엘의 아들들과 그 아내들은 “농탕치기 시작하여” 극도로 무례하게 되었다. 니파이가 그들에게 말해 주고자 하자, 레이맨과 레뮤엘은 그를 묶어 버렸다. 그 후 배를 가라앉힐 만한 무서운 폭풍우가 일어났다.

리하이에 관한 기록은 이렇게 나와 있다. “...이미 노령에 이르셨고 아들들로 인하여 크게 근심하였던지라. 마침내 병석에 누우시게 되었느니라.

“(레이맨과 레뮤엘)이 저지르는 근심과 슬픔과 또 저들의 죄악이 극심하여짐에, 하나님을 대할 날이 가까이 이르렀고, 저들의 회색 머리털이 땅에 묻힐 날이 임박하였으니, 참으로 슬프게도 거의 바다의 무덤에 던져질 지경에 이르렀느니라.”(니파이일서 18 : 8~18 참조)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뒤에 앉아 쉴” 수 있는 때를 고대한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게 끝마치게”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행복한 끝은 이 생에서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문제는 시련이 끝날 때까지 우리 시련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다.

한편, 우리 영의 단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하며 영에서 나오는 위안을 받게 한다. 흥미있는 것은, 흔히 우리를 하나님에게 가깝게 이끌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을 자주 찾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고통스런 박해와 시련의 일생을 보낸 후에, 이렇게 외쳤다 :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로마서 8 : 35~39)

리하이 역시, 평안을 찾았다. 황무지의 시련 속에서 헤매다가 약속의 땅에 도착한 후에, 그는 사망하기 직전에 이렇게 기록했다. “주님께서 나의 영육을 지옥에서 구속하시니 내가 주의 영광을 보았고 영원토록 내가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김을 보았느니라.”(니파이일서 1 : 15)

“역경의 광야”는 말은 일을 해냈으니, 그것은 올바르게 시작하여 시작한 대로 계속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일하는 것과 같다. 리하이의 영혼은 깨끗하게 되었다. 그는 가슴 속의 시련을 건디어 냈으며, 이제는 주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보상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리하이와 마찬가지로, 나의 친구 역시 그 자신의 개인적인 “광야”의 끝에 왔던 것이다. 그의 자녀들은 그의 부모들의 신앙으로 되돌아왔으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활을 하고자 한다. 그 싸움은 쉽지 않았으나,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잘 건디어 냈다.

물론, 모든 이야기가 우리의 원대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리하이의 두 만아들이 아버지의 미덕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은 엄연히 이해해야 할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은 리하이와 새라이아, 니파이, 샘, 야곱 및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을 취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승영은, 결국,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빌립보서 2 : 12)를 때 우리 개개인에게 오는 것이다.

아마도, 우리 자신의 “광야”에서, 이 찬송가를 생각해 내면 도움이 될 것이다.

구원 얻으려고 품에 안긴 영혼  
저희 원수에게 내주지 않으리  
은 지옥 떨며 떨어뜨리려 하나  
결단코 하나님 결단코 하나님  
저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굳도다 그 기초”, 찬송가, 16장)□

가족을 위한 지침

# 성전 엔다우먼트를 위해 준비함



**성**전 의식은 매우 성스러운 것이므로, 그것은 성전 안에서만 토론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성전 의식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경우 교사나 친구들이 무슨 말을 해주어야 하는지 확실히 알지 못하는 수가 있다.

성전 의식을 위해 준비할 때, 처음 참석할 때부터 성전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과 모든 의식을 이해할 수는 없으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신앙으로 성전 경험을 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성전을 처음 방문하는 것은 평생 동안 계속되는 영적인 교육과 깨달음의 아름다운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십이사도 평의회 of 존 에이 윗소 장로 [1921~1952]는 성전에서 수행되는 사업에는 “침례, 신권 성임, 결혼 및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한 현세와 영원을 위한 인봉,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한 엔다우먼트, 복음에 관한 가르침, 전도 사업을 위한 평의회” 등이 있다고 기록했다.

성전은 “신권 교육, 평화, 성약, 축복 및 계시의 장소입니다. ... 모든 충실한 교회 회원들은 성전을 활용하고 그 특권을 누리도록 권고받고 권유받습니다.” (성도의 빛, 1968년, 6월호)

### 엔다우먼트의 의미

침례를 받으면, 우리는 성신의 은사를 받게 된다. 그러나 성전 엔다우먼트는 이보다 큰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순결과 미덕의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우리 이웃에게 봉사하는 데서, 우리의 이기적인 소망을 희생할 것을 아버지와 함께 일련의 성약을 맺는 것이다. 그에 대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생에서의 보호와 축복, 그리고 영생에서의 큰 축복과 영광을 약속해 주신다.

브리감 영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여러분에게 간단히 정의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엔다우먼트는 주님의 집에서 그러한 모든 의식을 받는 것인데, 그것은 여러분이 이 생을 떠난 후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며, 파수꾼으로서 있는 천사의 곁을 지나, 아버지의 면전으로 들어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브리감 영 설교집, 존 에이 윗소 편, 솔트레이크시티 : 데저렛 출판사, 1941년, 416페이지)

이 의식을 통해서, 합당한 성도들은 세상의 악과 맞서기 위해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권능을 받을 수 있다. 거기서 그들은 지구 창조에 관한 가르침을 받게 된다. 그들은 아담과 이브의 범법과 그들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에 관해 배운다. 그들은 구원의 계획과 배도와 복음의 회복에 관한 가르침을 받는다. 가르치는 방법과 성전에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내용은 모두 독특한 것으로 평생 동안 규칙적으로 성전 예배와 연구를 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다.

“성전 의식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거주하는 해의 왕국에서의 승영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우리 생애를 통해 지침과 보호로 이 말일에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현명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해롤드 비 리, 성공적인 생활을 위한 결정, 솔트레이크시티 : 데저렛 출판사, 1973년, 141페이지)

침례가 우리 구원에 필수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엔다우먼트는 우리 승영에 필수적인 것이다. 그 외에도,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결혼의 인봉 의식을 받기에 앞서 수행되어야 하는 개인 의식이다.

### 엔다우먼트 받기에 합당함

복음의 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합당성을 토대로 한 것이다. 이것은 특별히 성전 의식에 관한 것이다.

“엔다우먼트의 축복을 받기 위한 합당성과 적절한 마음의 준비가 부족하다면, 진리의 빛이 것처럼 밝게 타오르는 주님의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빛은 저주도 되고 축복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 케이 에드먼즈, 성전 문을 통해서, 솔트레이크시티 : 북크래프트사, 1978년, 77페이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해진 합당성의 표준에는 이러한 것이 포함된다:

- 도덕적으로 깨끗함





- 예언자를 지상에서 모든 신권의 열쇠를 행사하는 권능을 부여받은 유일한 분으로 지지함.
- 교회의 표준에 따라 생활함.
- 해결되지 않는 죄악은 갖고 있지 않음.
- 정직함.
- 훌륭한 표준을 지닌 활동적인 회원이 됨.
- 완전한 십일조를 바침.
- 모든 가족과 의로운 관계를 맺음.
- 지역 및 전체 교회 지도자를 지지함.
- 지혜의 말씀을 지킴.
- 배도의 무리와 연합하지 않음.

우리는 감독 또는 지부장과의 접견에서, 그 다음에는 스테이크 또는 선교부장단의 한 사람과 갖는 접견시에, 성전 추천서에 있는 이러한 표준에 따라 생활하는가 하는 질문을 받는다. 합당성의 문제에 대하여 신권 지도자들을 만족시키는 사람들은, 성전을 들어갈 때 제시해야 하는 성전 추천서를 받을 수 있다. 그들의 추천서에 서명하는 것은 성전에 들어가기 위한 합당성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서약하는 것이다.

감독 또는 지부장은 성전 참석의 기타 규칙 및 규정에 관해 여러분이 제기할 수 있는 질문에 답할 수 있다.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 젊은 사람들은 선교사로 봉사하기 직전 또는 결혼할 때 엔다우먼트를 받는다.
- 남자는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해야 한다.
- 성숙한 독신 여자는 성전 결혼을 하기 전에, 또는 영적으로 준비되었다고 감독이 느낄 때 엔다우먼트를 받도록 허락받게 될 것이다.
- 비회원 또는 엔다우먼트를 받지 않은 배우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배우자가 승인한다면 성전 추천서를 받을 수 있다.
- 교회에 개종하는 사람은 일 년이 지나야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 특별한 허락을 받은 처지를 제외하고는, 성전 밖에서 결혼한 부부는 일년이 지나야 엔다우먼트와 결혼 인봉을 받을 수 있다.



## 성전에서의 첫 시간

성전을 처음 방문할 때 서두른다면, 무엇인가 놓치게 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자기 자신의 엔다우먼트를 받는 것은 다만 한번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모든 면에서 즐겁고 기억에 남는 경험이 되도록 시간을 내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곳에 일찍 가서 추천서와 복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할 뿐만 아니라, 고요하고 명상하는 마음으로 가다듬어 경험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성령의 도움으로 잘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성전에 처음 참석할 때는 성전 봉사자가 항상 함께 있어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 성스런 상징 및 성전 예배

인류 역사를 통해, 인간은 흔히 그들이 배운 진리를 나타내는 상징을 사용해 왔다. 성전 엔다우먼트를 이해하는 많은 열쇠는 상징을 인식하는 데 달려 있다. 상징은 단순한 표현 수단이나, 성전 안에서 사용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가르칠 수 있는지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여러 해 동안의 성전 예배가 필요하다. 의식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서도, 우리는 거기서 사용되는 상징의 본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거룩한 성전이라는 책에서 십이사도 평의회는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는 이렇게 쓰고 있다:

“우리는 성전에서 의식을 행할 때 흰옷을 입습니다. 이 흰옷은 순결과 합당성과 청결의 상징입니다.…”

“성전 의식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내의, 곧 가먼트를 입어야 합니다.…”

“가먼트는 거룩한 성약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정숙한 마음을 키워 주며 착용자의 방패와 보호가 됩니다.

“성전은 그 자체가 상징이 됩니다. 여러분이 밤에 불을 환히 밝힌 성전을 보았다면, 얼마나 인상적인 광경인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으로 씻어 낸 주님의 집은, 영적인 어둠 속으로 잠겨드는, 세상에 햇불처럼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영감의 상징이 됩니다.

“그 빛은 다른 종류의 빛—영적인 빛의 상징입니다....

배우는 과정의 일부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적인 빛을 받아 들일 수 있는가는 우리의 순응력에 달려 있습니다.”(보이드 케이 팩커 장로, 거룩한 성전, 솔트레이크시티 : 북크래프트사, 1980년, 42, 44, 71, 75페이지)

영원한 상징을 지닌 언어를 이처럼 간단히 소개하는 것은, 왕국의 신비와 영원의 본질을 토론하기 위해 주님과 그의 종들이 사용한 상징의 시작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이 성전 안에서 생각해 보고, 영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가르침받은 영원한 본질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성전 의식에서 상징된 진리는 밝혀지게 될 것이다.

성전에서 사용된 상징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뜻깊은 성전 예배를 드리는 출발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임을 강조해야 한다. 우리가 맺는 성스러운 약속도 우리의 일상 생활의 모든 면에서 지키고 생활해야 한다.

주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특권이다. 엔다우먼트를 받는 필요성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생활에 의미와 목적을 더해 준다. 자신의 엔다우먼트를 받은 후에는, 침례와 확인, 엔다우먼트 및 인봉의 영원한 의식을 받지 못한 채 죽은 의로운 사람들을 대신하여 계속 성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아름다운 기쁨을 경험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에베소서 4:13) 자라난다는 의미의 일부가 된다. 1987년 4월 연차 대회에서 보이드 케이 팩커 장로는 이렇게 질문했다. “스스로 자신을 위해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성전 의식을 수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것이 아닙니까?”

우리 자신의 엔다우먼트를 위해 성전에 참석하고,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참석함으로써 영적인 것을 배우는 데 일생을 보내는 것은, 이 지상에서 우리가 맡은 사명과 성도를 온전케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죽은 자를 구속하려는 교회의 사명에서 중요한 부분이 된다.

### 성전에 관한 것을 자녀에게 가르침

성전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는 자녀들이 성전에 참석할 기회를 갖게 될 때를 대비시키는 강력한 교육 수단이 될 수 있다. 성전 엔다우먼트의 축복을 깊이 감사하는 부모의 태도를 자녀들이 인식할 때, 그들은 그들의 생활에서 이 축복을 기대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자녀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전의 중요성을 알려 줄 수 있다. 집안의 벽에 성전 사진이나 그림을 걸어 둘 수 있다. 가정의 밤 시간을 이용하여 일반적인 면에서 성전 의식을 이해시킬 수 있다. 가족 기도와 아버지의 축복으로, 성전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영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성전 표준에 대하여 토론하는 것은 질서와 단정한 옷차림, 영원한 가족의 원리를 부모가 학령전 어린이, 특히 침례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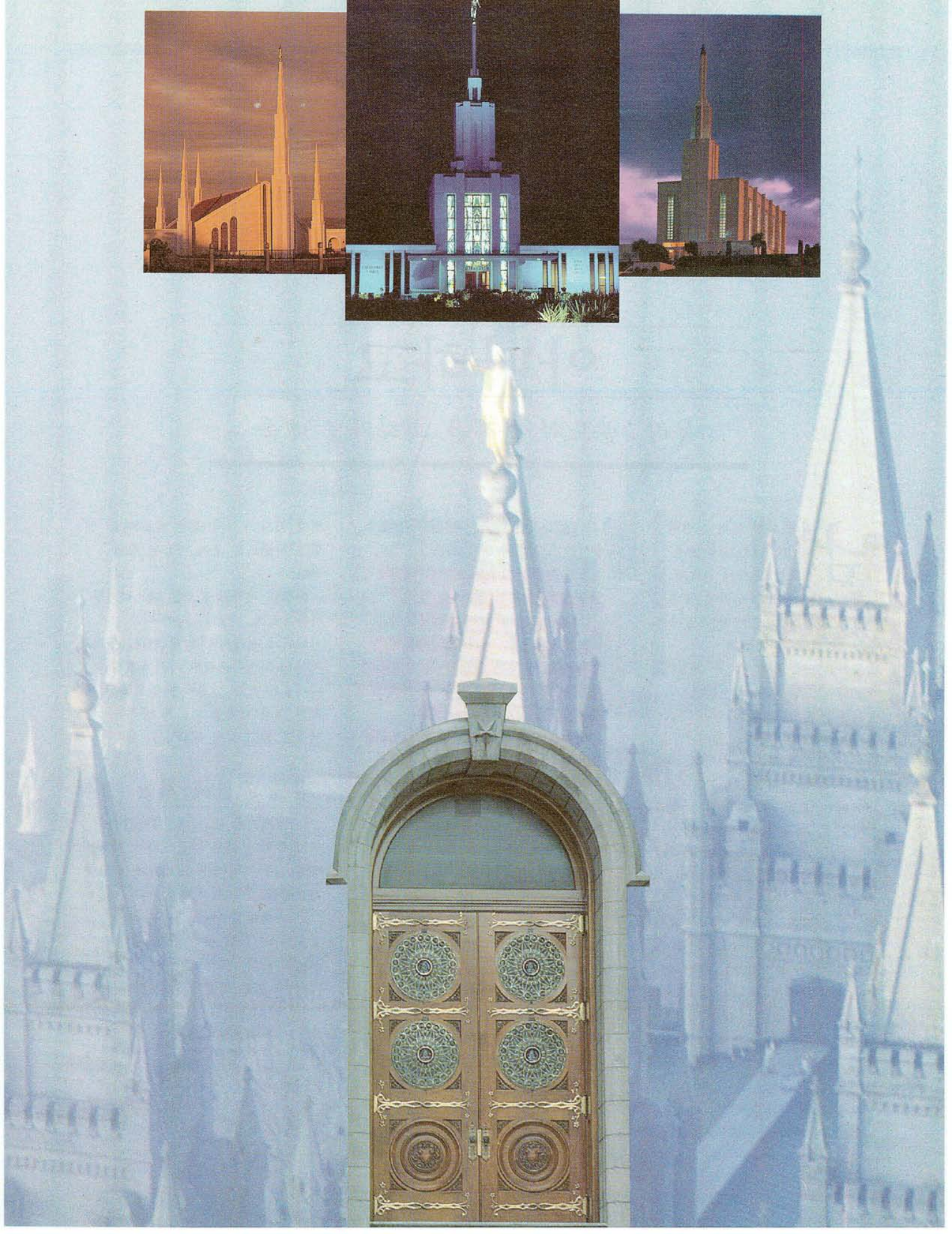
자녀들과 나누는 기회를 준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자녀는 부모가 성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여 그곳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성전을 크게 존중하게 될 것이다.

엔다우먼트를 위해 준비하는 아들이나 딸과 함께 가정의 밤이나 개인적인 연구 시간에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신중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토론하고 나면, 이 거룩한 주제에 대하여 앞으로 토론하는 모든 것은 성전에서 함께 하기에 합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러한 기사에서 그것을 언급함으로써 처음으로 성전에서 기대하게 되는 것을 자녀에게 편안하게, 그러나 존경하는 마음으로 알릴 수 있다.

자녀들이 엔다우먼트의 축복과 성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축복을 이해하도록 도와 주는 것은 여러분의 관계에 더욱 깊은 영성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예누의 아버지와 같이, 여러분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모세서 6:21)을 가르쳐 주게 될 것이다. □





#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목적 : 분노와 분쟁을 피하기를 배움

**남**편이 아침 일찍 신권회 모임에 나갔기 때문에, 민희는 혼자서 가족이 교회에 나갈 준비를 시켜야 했다. 아기는 칭얼대었고, 어린 해영이는 구두 한 짝을 찾지 못해 범석이었으며, 다섯 살 난 대영이는 깨끗한 일요일 셔츠 앞자락에 음식물을 흘렸다. 힘이 쭉 빠진, 민희는 다 집어 치우고 집에 그냥 남아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교회에 늦게 도착한 그녀는, 여전히 해영이와 대영이에 대한 화가 풀리지 않았으며, 경건성을 느끼기가 힘들었다. 우리는 대부분이 때때로 좌절감과 초조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분노하게 되어 그러한 느낌을 표현할 때, 우리는 영을 거스리게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나아와 우리 스스로 온전하게 되려면, 우리는 “어떤 것이 공평한 것인지?”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내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고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한다.

예수는 큰 박해를 이겨 내었다. (니파이일서 19:9 참조) 그는

그를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셨다. (누가복음 23:34 참조) 우리는 대부분이 큰 박해를 당하게 되는 일이 없으나, 흔히 사소한 일로 “화”를 낼 때가 많다. 무례함, 불순종, 기다림, 불화, 실망 및 성취하지 못한 기대는 특히 우리가 피곤하거나, 아플 때, 서두르고 있을 때, 우리를 노하게 할 수 있다.

그러한 때, 우리가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은 분노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성내지”(모로나이 7:45)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으로 대화를 택할 수 있다. 우리는 다른 뺨(마태복음 5:38~39 참조)을 돌려대고 인내심과 친절로 대할 수 있다.

우리는 사랑의 정신을 키우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우리는 분노 또는 초조감을 다스리는 방법에 집중할 수 있다.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고 숨을 깊게 들이쉬는 것도 도움이 된다. 같은 환경하에서 예수님이라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게 하실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 자문해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역시 도움이 될 수 있다. 기도와

회개 역시 우리의 영을 치유해 줄 수 있고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준다.

분쟁을 피하고 분노를 다스리기를 배움으로써, 우리는 악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지 않게 한다. 우리는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자기에게 나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갖게 하고 그의 모범을 따르게 하시는 예수를 좀더 닮게 된다. □

## 방문 교사를 위한 제언

1. 마태복음 18장 15, 21~22절을 읽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감정을 상한 경우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도록 가르치신 것에 관하여 말한다.
2. 자매에게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것에 관해 생각해 보라고 한다. 이러한 경우에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말한다.

(관계된 자료로 가정의 밤 자료집, 31~35, 48~51, 79, 98~101, 106~8, 138~40, 168, 173~74, 180~81, 235~247 및 251~53페이지를 참조한다.)

# 미술 작품의 풍부한 수확

제1회 말일성도 국제 미술 대회에 나온 작품들



# 미술 작품의 풍부한 수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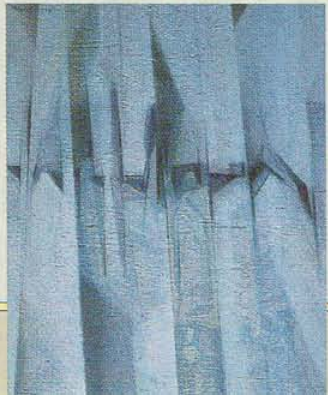
앞 페이지 왼쪽: 구세주의 탄식이 병아리를 품은 어미닭의 이 석회 조각,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에 영감을 주었다(마태복음 23:27 참조), 아이다호주, 렉스버그, 로이 엘 스튜어트 작. "요셉 스미스 일세", 점토, 류바 프류삭, 패세드나, 캘리포니아. "경전 읽기", 우드, 존 데이, 아이다호 보이스.



위: "비디의 섬들에 주어진 위대한 약속", 유화, 로리 쇼벨렌, 알타 로마, 캘리포니아. 오른쪽: "첫 여름비", 유화, 테오도리코 피 크메군 이세, 리파 시티, 필리핀.



오른쪽: "아담의 갈비뼈", 청동, 엘리자벳 로우 브라운, 로간, 유타. 오른쪽 가운데: "칼레이도스코프", 유화, 요한 에이치 벤딘, 호취타트, 독일 연방 공화국. 오른쪽 끝: "사라를 봄", 유화, 리 우달 벤던, 스포링 시티, 유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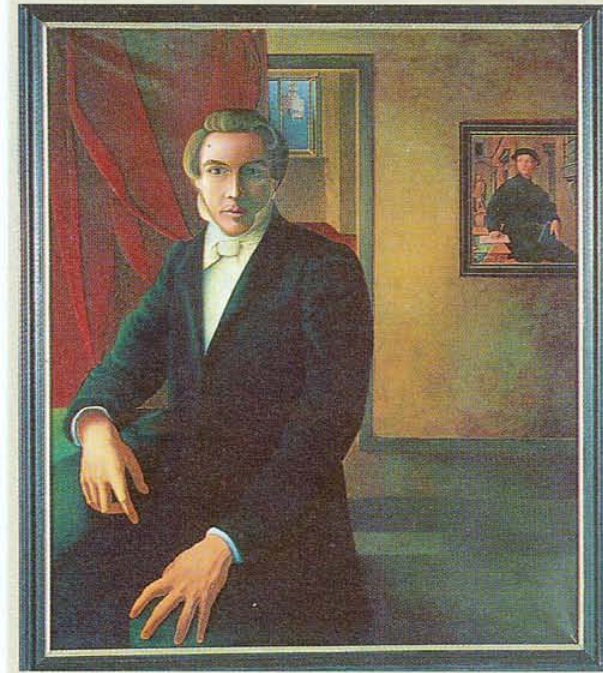




왼쪽 1위 입상작: "리하이의 꿈", 유화, 스티븐 엘 님, 펜들톤, 오레곤.  
 왼쪽 아래 2위 입상작: "1844년 6월 24일, 월요일 오전 4시 15분: 그 일이 있기 전", 유화,  
 피노 드라고, 프랑크푸르트, 독일 연방 공화국, 아래 3위 입상작: "보지 못할 것을 본 그들",  
 유화, 샤우나 클링거, 슬트레이크시티, 유타.



왼쪽 아래: "주택가", 유화,  
 워키리아 브론즈 다미아니,  
 사옹 파울로, 브라질.  
 아래: "경전 읽기", 유화,  
 매리온 호스, 뉴튼, 유타.



왼쪽 위: "헤바라기와 머팔로 칩스", 유화, 게리 캡, 프로보,  
 유타. 오른쪽 위: "베넌의 마돈나", 수채화, 나옴이 영,  
 라구나 니구엘, 캘리포니아. 왼쪽: "노래부르는 다윗", 혼합한  
 용액, 지오바니 게타, 밀라노, 이태리.

# 말

일성도 새로운 미술 작품 전시회가 지난 해 솔트레이크시티에서 관심을 모았다. 170점의 그림과 조각 작품이 전시된 전람회는 제1회 말일성도 국제 미술 대회에 제출된 1,000점이 넘는 작품 중에서 선정된 것이었다.

“우리는 풍부한 시각 자료를 거두어 들었어요” 하고 글렌 엠 레오나드 전람회장이 말했다. “다양한 작품 형태로부터 우리는 회복된 복음 안에서 계속 이어지는 간증의 실을 보았습니다. 작품을 제출한 미술가들은 조각으로 인상에 남는 형상을 만들었으며, 역사와 교회의 현재의 활동에서 그들의 작품을 만들어 냈습니다.

“전시된 작품에는 다양한 예술적 전통을 통해 나타난 공통된 신앙이 표현되었습니다” 하고 레오나드 형제는 설명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시각적 언어가 어떤 것이고 또한 그들이 나타내는 국가 미술 전통이 어떠한 것이든지, 특정한 종교적 형상은 말일성도의 보편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예를 들자면, 구세주의 속죄의

메시지는 그것이 미국 출신 삽화가의 소묘로 그려진 것이든, 유럽 출신 화가의 추상화 형식이든, 라틴 아메리카 출신 아마추어 화가의 대담한 채색화이든 모두 의미를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대회로 인해 말일성도 화가들은 미술 활동을 통해 종교 신앙을 나누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회장단의 일원이며 교회 역사과의 집행 관리자인 딘 엘라슨 장로의 말이다. “이 전시회로 우리는 그들의 헌신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창조해 내는 종교적인

그림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영감을 주기를 희망합니다.” 라슨 장로가 공식적으로 전시회를 열었으며 입상자들에게 상을 수여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기증자가 상당한 후원금을 냄으로써, 40,000불 이상이 시상되었다.

1위 입상자는 오레곤주 펜들톤에서 스스로 그림을 그려 온 스티븐 엘닐로서 “리하이의 꿈”을 그려 수상했다. 2위는 독일 연방 공화국의 프랑크푸르트 출신인 피노 드라고에게 돌아갔는데, 예언자의 순교가 있기 전의 결정적인 순간을 묘사한 “1844년 6월 24일, 월요일 오전 4시 15분, 그 일이 있기 전”을 그렸다.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의 서나 클링거는 “보지 못할 것을 본 그들”이라는 제목의 이원 그림으로 3위를 했다.

여섯 개의 가작 작품 외에, 몇몇 전시된 작품은 전시관에서 영구 소장품으로 구입했다.

여기 실린 작품은 전시 작품 중에서 몇 가지를 뽑은 것이다. □



왼쪽으로부터: “앤드류”, 청동, 제임스 알 애배터, 솔트레이크시티, 유타; 가작 “경건”, 청동, 로라 리 스테이, 프로보, 유타; “평안하라, 잠잠하라”(마가복음 4:39 참조), 청동, 마크 홉킨스, 에머슨, 조지아.







#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문 교사로부터 멜린다 셔트너

**사**년 전쯤 남편, 데이비드와 나는 테네시의 클락스빌에 있는 낡은 집을 샀다. 우리는 내부를 모두 뜯어 내고, 마루 바닥도 일부 떼어 내고, 전선과 배관을 갈아 끼우고, 방을 더 늘렸다. 정말 큰 공사였다. 우리는 줄곧 집안에 머물러 있었다.

우리는 건축 현장에서 살았다. 밤에 침대에 들기에 앞서, 나는 침대 커버에서 톱밥과 돌조각, 나무 토막과 기타 쓰레기를 긁어 모아야 했다. 나는 비로 바닥을 쓸어 내는 것이 아니라, 큰 삽을 사용했다. 거실에는 목재와 합판이 쌓여 있었다. 페인트 통, 못 상자, 사다리 및 기타 연장이 실내 여기 저기에 흩어져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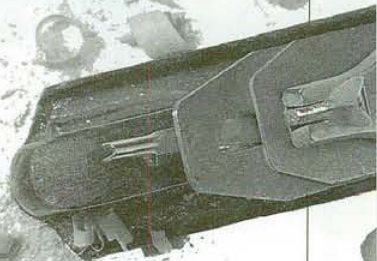
개축하는 동안, 나는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 출산 예정일 이 주 전에, 우리는 바닥을 더럽혔으며, 새로운 방에 칠을 했다. 그날 밤, 진통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병원으로 달려 갔으며,  
집에는 난방 장치도 되지  
않고, 앞 방에는  
창문도 없고,

아기가 잠잘 곳도 마련되지 않은 채였다.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90킬로미터 떨어진 시골 농장에서 차를 몰고 왔다. 나는 엄마가 오시는 것이 걱정이 되었다. 엄마와 나는 1976년에 교회에 가입한 이래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해 왔었다. 그러나 집안이 온통 난장판이 된데다 새 아기를 낳게 된 판이었으니, 내게 도움이 필요하리라는 것을 엄마는 아셨던 것이었다.

집으로 가기에 앞서, 엄마는 우리의 건축 현장을 둘러 보았다. 기가 막혔다. 새 아기 손주를 데려 와야 할 생활 환경에 낙담이 된 엄마는 내가 병원에서 돌아오기 전, 다음 날 오후에 집을 깨끗이 치우기로 계획을 세웠다. 엄마는 작업복을 입고, 삽과 갈퀴와 바켓을 손에 들고 계획한 대로 왔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건축 현장이 깨끗이 치워져 있었던 것이었다. 목재, 합판, 페인트 및 연장은 모두



한 방에 깨끗이 치워져 있었다. 깨끗한 시트가 침대에 깔려 있었다. 새 매트리스와 새 시트로 싼 아기 침대가 아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더러운 세탁물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았다. 남편을 위한 점심도 냉장고에 마련되어 있었다. 아기 옷 꾸러미와 커다란 기저귀 가방이 현관 가까이 놓여 있었다. 그 위에 카드가 놓여 있었다.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문 교사 캐롤과 바바라 드림.”

나는 이 자매들을 잘 알지 못했다. 그들이 나의 방문 교사로 부름받은 것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그 다음 날 병원에서 돌아왔을 때, 캐롤은 깨끗이 빨아 손질한 빨래를 가져왔으며, 바바라는 저녁 식사를 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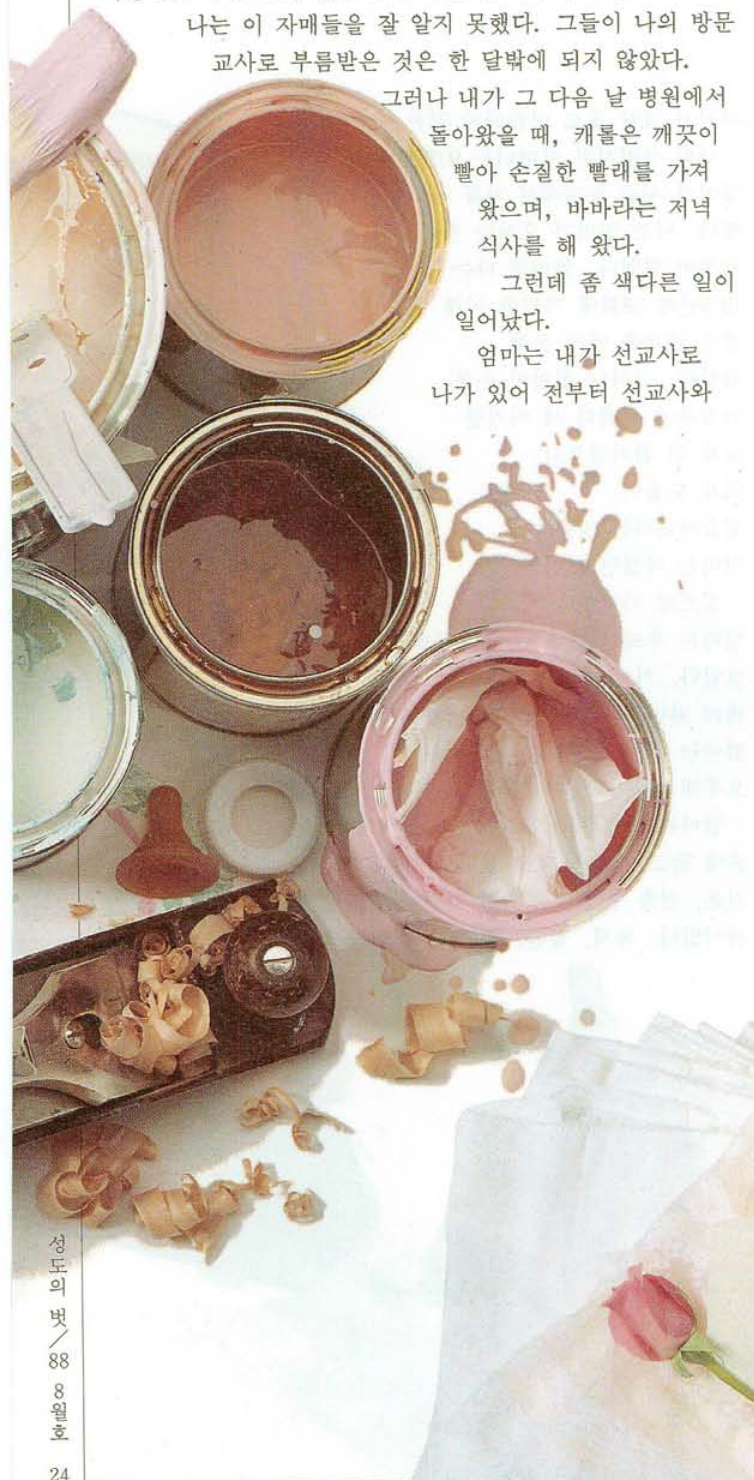
그런데 좀 색다른 일이 일어났다.

엄마는 내간 선교사로 나가 있어 전부터 선교사와

토론을 해 왔다. 엄마는 네 권의 표준 경전과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을 읽었다. 그러나 엄마의 마음은 복음이 실천되는 것을 보기 전까지도 부드럽게 되지 않았다.

엄마와 나는 그 주말에 환침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를 껴안았다. 우리는 그날 밤 오래 이야기를 나누면서 눈물을 흘렸으며, 엄마와 딸로서 친밀감을 다시 느꼈다.

이제 딸 셋을 둔 나의 남편과 나는 엄마가 사시는 곳에서 3,000킬로미터 가량 떨어져 있는 미국 서부 지역에 살고 있다. 나는 엄마의 전화와 편지를 고대하며 생활한다. 내 생애에 그러한 축복을 가져다 준, 나의 방문 교사인 캐롤과 바바라 자매에게 감사한다. 그들은 집을 깨끗이 치워 주고 식사 준비를 해주기 위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마음을 달래 주고 상처를 치유해 주어 가족 관계를 다시 합치게 해주었음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



# 자기가 쓰는 언어

번역 작업은 모든 나라와 혈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산드라 윌리엄스

1987년 6월 말 어느 서늘한 저녁에  
오kland 캘리포니아 성전 밖에서  
떨어서 부르는 노래 소리가 울렸다.

여러분이 그곳에 있었다면, 아름다운 노래라는  
것을 인식했겠으나, 가사가 귀에 익지 않다고  
여겼을 것이다. 그 노래는 이런 것이었다: 도브  
바이 츠비 콤포 로브 시브 폼 두아, “우리 다시  
만나볼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를 호몽어로 부른  
것이였다. 호몽어란 동남  
아시아의 라오스 산



부족의 언어이며, 그때 막 성전에서 가족 인봉을 받은 쿠아 로와 그의 형제들인 이아 로와 총 리 로의 모국어이다. 그 날은 그들의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때였다.

로 가족의 개종과 그들이 부른 노래는 복음을 “모든 나라와 혈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교성 133 : 37)하고자 노력해 온 교회의 그 수많은, 심지어는 기적적이기도 한 이야기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로 가족은 그들이 스테이크 선교부장인 스코트 켄킨스 형제를 만난 솔트레이크시티 워드에서 교회에 처음 참석했다. 그는 태국어를 말하는 귀환 선교사, 브라이언 위커의 도움을 받아 로 가족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위커 형제가 태국어로 복음 메시지를 전하면 그것을 쿠아 로가 호몽어로 번역하여 그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하는 것이었다.

의사 소통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로 가족은 열심히 복음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교회에 계속 참석했으며, 호몽어를 말하는 지부의 핵이 되었다. 드디어, 교회 번역부에서는 성찬 기도문과 복음 원리의 일부 및, 찬송가 일부를 호몽어로 낼 수 있었으며, 지부 회원들은 그들의 모국어로 전체 모임을 가질 수 있었다. 후에, 그들은 복음 원리와 몰몬경 이야기의 완역판을 받았다.

로 가족의 침례에 이어, 쿠아 로는 솔트레이크시티의 첫 아시아 지부의 지부장으로 일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그는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베이커스 필드에 살고 있으며, 그곳에서 그는 아시아 지부의 지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항상 그의 백성들에게 복음 메시지를 전해 온 로 형제는 적어도 구십 명을 침례주는 책임을 맡았다.

로 형제는 그의 개종시에 성신의 영향력을 간증할 수 있으니,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느낄 수 있었던 영향력이었다. 그러나 호몽어로 번역된 복음의 자료가 없었다면, 로 형제의 가족이 성전에서 축복을 받기까지는 더 오래 기다려야 했을 것이다. 아마도 그들은 그 축복을 받지 못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 복음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함

언젠가는 “제각기 자기가 쓰는 언어와 문자로 충만한 복음을 듣게 되리라”(교성 90 : 11)는 주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 준비하는 중에,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1965년에 교회 번역부의 설립을 지시했다. 번역부 직원들은, 솔트레이크시티 본부에서 일하든, 또는 전세계에 있는 보조 사무실에서 일하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이 과업은 약 150개 언어로 몰몬경 및 교회 자료 및 잡지를 발행함으로써 수행된다.

총관리 역원들은 컴퓨터 형태의 현대 기술로 전보다 더 쉽고 빠르게 번역하고, 더 나아가서는 특별 상징 및 부호를 사용하는 언어로도 번역하는 부의 창설을 지시했다.

그러나 컴퓨터는 영감이 부족하며, 주님은 그 일을 할 많은 개인 번역사들을 준비시켰다. 예를 들면, 1980년에 번역부의 한 관리자가 교회 자료를 인도 및 방글라데시어인 벵갈리어로 번역하는 과제를 맡았다. 당시 그 언어를 아는 교회 회원을 찾을 수 없었던 그는 두 명의 비회원 교사의 도움을 청했다. 그들의 번역이 완성되자, 관리자는 그 번역물의 교리 및 문법적 정확성을 검토해 줄 회원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했다.

그의 요구에 응답이 되기라도 하듯, 그는 하와이 브리검 영 대학에서 수학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출신의 개종자인 타우히드 울 알람에 관한 기사를 읽었다.

알람 형제의 도움으로, 벵갈리어로 된 몰몬경 선집이 1985년에 인도, 뉴델리에서 출판되었다.

###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 하는 것이 필요함

때때로 주님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가나의 샘슨 데이비스 자매는 번역부에서 그 과업을 지명하기도 전에 그녀의 모국어인 판테어로 몰몬경을 번역하라는 영감을 받았다. 성장기에 데이비스 자매는 기독교인과 함께 하는 생활을 해 왔다. 청소년기에, 그녀는 그리스도의 희생에 큰 감명을 받고 감사함을 느껴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하겠다는 강한 소망을 품게 되었다. 그로부터 약 사십 년이 지나서, 네델란드에서 영어를 배우고 가나의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교회에 가입했으며, 소녀 시절의 소망을 성취시키는 기회를 찾았다.

성찬식에 참석한 어느 날 밤, 샘슨 데이비스 자매는 회중 중에 몇몇 사람들은 영어를 알지 못해 찬송가를 부르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 백성들을 위해 복음 자료를 번역해야겠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그날 밤, 그녀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번역했다. 그 후 다른 찬송가도 번역했다.

이러한 일부 번역 작업을 해낸 데 고무받은 샘슨 데이비스 자매는 여러 해 동안 준비해 온, 몰몬경을 판테어로 번역하는 방대한 작업을 해야겠다고 느꼈다. 샘슨-데이비스 자매와 몰몬경 번역을 검토해 본 교회 번역부는, 전문적인 번역 경험이 별로 없었던 이 학교 교사가 상당히 정확하게 훌륭한 번역을 해낸 것을 보고 놀랐다.

샘슨 데이비스 자매는 주님께서 준비하신 자질을 갖추고 헌신적인 번역사의 귀감이 되며, 번역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다. 현재, 번역부에서는 세계 모든 나라마다 최소한 한 가지 주요 언어로 교리 자료를 번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1986년에 대관장단에 의해 승인되어 모든 나라의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이 작업은 몇 해 안 되어 더 많은 각국어로 자료를 읽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프로그램의 “모든 나라”라는 명칭은 1978년에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이 한 말씀에서 연유된 것이다.

## “그들의 백성에게 빛으로”

“우리가 모든 나라에서 조그맣게 시작하기만 한다면, 얼마 안되어 모든 혈족과 방언의 개종자들이 그들의 백성에게 빛으로 나서게 되고 주님이 오시기에 앞서 복음이 모든 나라에 전파될 것입니다.”(지역 대표 세미나, 1978년 10월)

번역부 책임자인 엡 데이비스 형제도 그 프로그램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총관리 역원들은 영감을 받아 이 과업을 지시합니다. 처음에, 우리는 모든 나라 프로그램의 언어에서 희귀한 언어가 너무 많아 번역사를 찾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우리를 위해서 길이 마련되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인도와 아프리카 사이의 섬인 세이셸즈 출신의 교회 회원들을 이십 명 찾아 내었으며, 그들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간다 출신의 사십 명의 회원들도 언제든지 부를 수 있으며, 솔트레이크 밸리에 거주하는 에디오피아 말을 하는 네 사람을 찾아 냈습니다.”

아프리카 언어로 된 작업을 감독하는 로웰 비숍 형제는 이러한 언어에 대한 대부분의 번역사들이 교회 회원이 된 것은 대개 모든 나라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던 때였다고 말한다. 번역부에서 일해 온 거의 모든 언어에 대하여, 번역을 하기 위하여 회원이 “나섰다고” 그는 덧붙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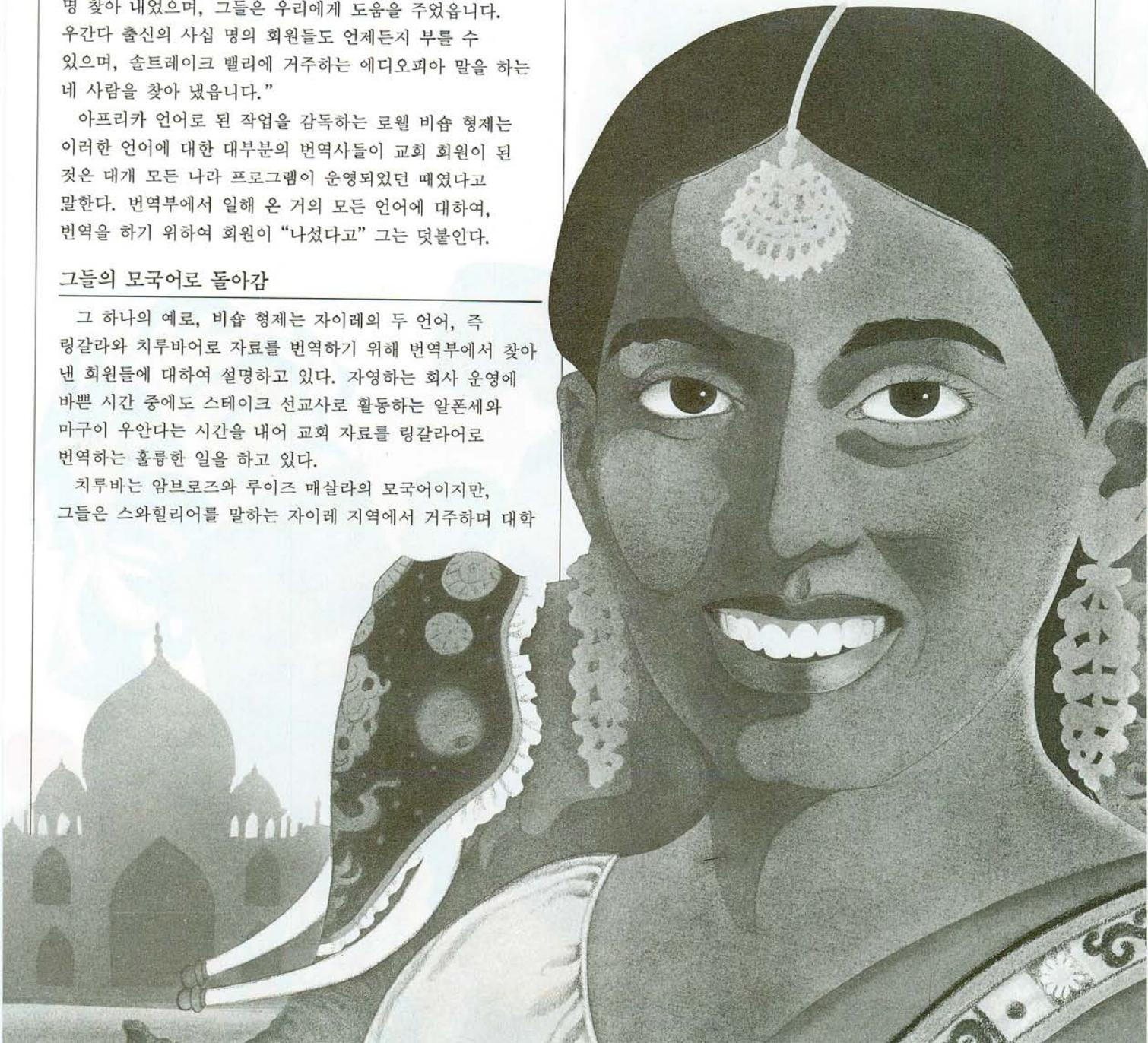
## 그들의 모국어로 돌아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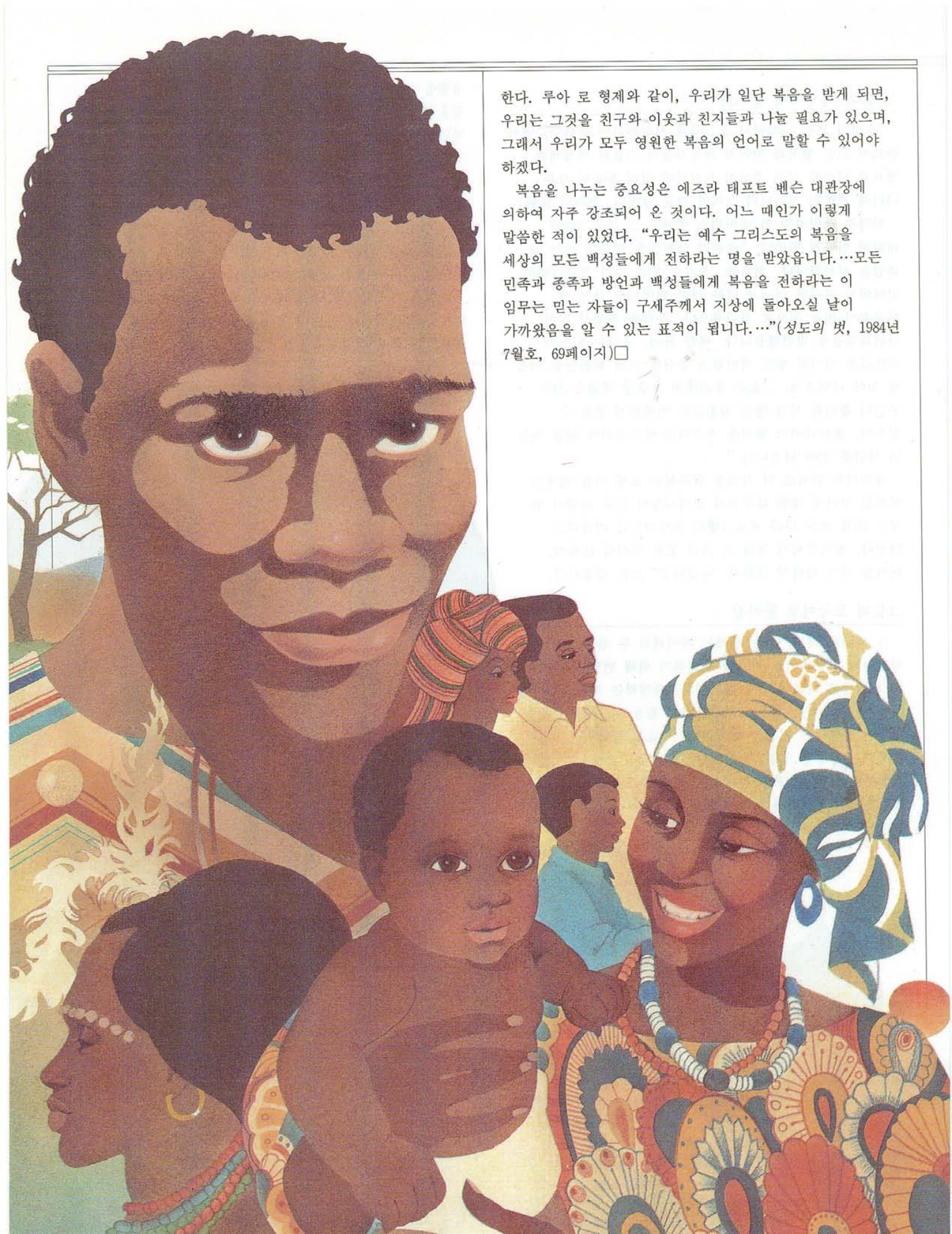
그 하나의 예로, 비숍 형제는 자이레의 두 언어, 즉 링갈라와 치루바어로 자료를 번역하기 위해 번역부에서 찾아 낸 회원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자영하는 회사 운영에 바쁜 시간 중에도 스테이크 선교사로 활동하는 알폰세와 마구이 우안다는 시간을 내어 교회 자료를 링갈라어로 번역하는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

치루바는 암브로즈와 루이즈 매실라의 모국어이지만, 그들은 스와힐리어를 말하는 자이레 지역에서 거주하며 대학

생활을 하여, 그것이 그들의 일상 용어가 되었다. 그들이 결혼한 직후에, 암브로즈는 그들이 서로 치루바어를 쓸 것을 제안했다. 루이즈는 그들이 여러 해 동안 스와힐리어로 말해 왔기 때문에 그 제안을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은 치루바어를 다시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그들의 자녀는 집에서 치루바어를 말하며 자라났다. 그들이 자료를 치루바어로 번역해 줄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받고서, 깜짝 놀란 루이즈는 결국 암브로즈가 그들이 거의 다 잊어 버렸던 언어를 다시 사용할 것을 영감받았던 이유를 깨달았다.

그러나 치루바어든, 흐몽어든 기타 교회 번역부에서 일하도록 지시받고 있는 수없이 많은 언어에 있어서, 메시지는 대개 말일성도의 일상 생활 용어로 번역되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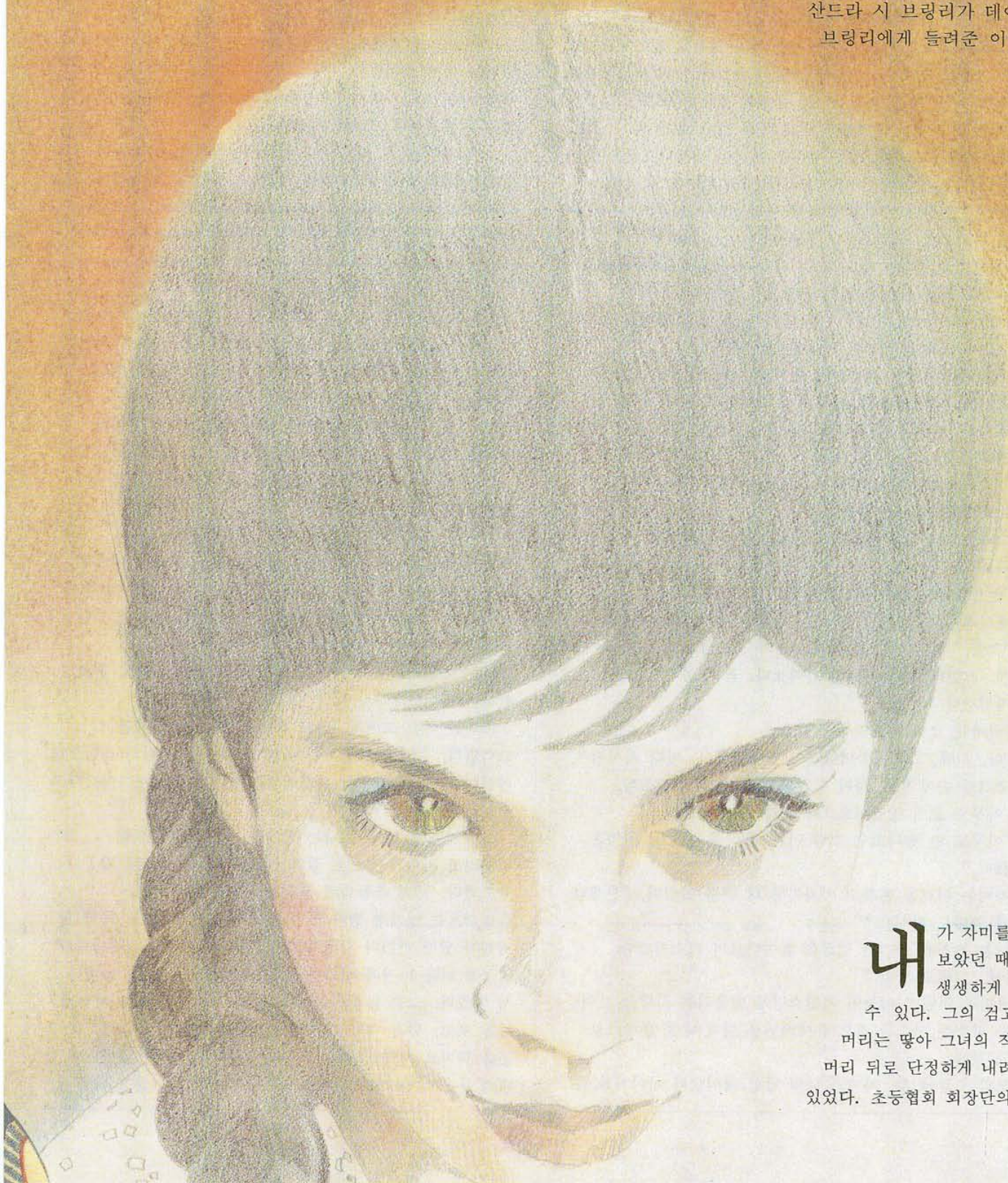


한다. 루아 로 형제와 같이, 우리가 일단 복음을 받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친구와 이웃과 친지들과 나눌 필요가 있으며, 그래서 우리가 모두 영원한 복음의 언어로 말할 수 있어야 하겠다.

복음을 나누는 중요성은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에 의하여 자주 강조되어 온 것이다. 어느 때인가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의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 임무는 믿는 자들이 구세주께서 지상에 돌아오실 날이 가까왔음을 알 수 있는 표적이 됩니다.…”(성도의 빛, 1984년 7월호, 69페이지)□

# 자미

산드라 시 브링리가 데이비드  
브링리에게 들려준 이야기



**내** 가 자미를 처음  
보았던 때를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다. 그의 검고 긴  
머리는 땅아 그녀의 작은  
머리 뒤로 단정하게 내려져  
있었다. 초동협회 회장단의

존스 자매가 그녀를 자리로 인도해 줄 때 그녀의 크고 부드러운 갈색 눈동자는 겁을 내듯 방안을 둘러보았다. 그 날은 내가 새로운 와드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처음 앞에 나선 날이었고, 최근에 결혼한 일이며, 새로운 친구와 새로운 부름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으로 가득 찬 중에도, 자미에 관해 무엇인가 나의 관심을 끄는 것이 있었다.

분반을 하고 난 뒤 나는 용기반 제 1 과정에 몰두하게 되어 자미를 알아 보았던 때를 잠시 잊었다. 그런데, 공과를 시작한 지 오 분쯤 되었을 때, 문에서 조용히 노크 소리가 나고 존스 자매가 자미를 등글게 둘러 앉은 우리 원 안으로 데리고 왔다. 그녀의 예쁜 얼굴은 바닥을 내려다보았으며, 가끔 시선을 들어올려 예쁜 모습을 드러내었다. 그녀의 표정은 순진함과 예지의 모습이 나타났으나, 그녀의 관심이 마루 바닥으로 되돌아가자 감추어졌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미는 더욱 활동에 참여하고, 자주 미소도 짓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던 예언자에 관한 질문에 답도 해 주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토론시에 내가 물을 때에만 말을 하는 등, 전체 공과에 완전한 관심을 기울였다.

다른 어린이들이 성찬식에 참석하러 떠났을 때, 칠판을 지우다가 몸을 돌린 나는 그녀가 그때까지, 마치 내가 끝나기를 기다리더라도 하듯이, 참을성있게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성찬식에 가지 않을거니?” 그녀의 옆에 놓인 작은 의자에 앉으며 나는 물었다.

그녀는 깨끗이 다린 옷의 주름을 펴면서 천천히 나를 올려다 보았다.

“선생님과 같이 가도 되겠어요?” 그녀는 요청이 나를 불쾌하게 하기라도 할 것처럼, 간절한 음성으로 말했다.

“그럼,” 하고 나는 말했다. “네가 부모님을 찾는 것을 도와 줄게. 그런데 우리 서둘러 가야겠다. 곧 모임이 시작되겠다.”

“엄마는 교회에 오지 않으셔요.”

“아, 그래, 그럼, 할머니가 오셨나보구나. 어디 계시지?”

조그만 손이 멈칫 하며 힘없이 무릎 위에 얹혀졌다.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나 혼자 왔어요.”

“아무도 안 왔다고? 그럼 너를 데려 온 친구나 친척은 있겠지.”

자미는 머리를 흔들고 가자는듯 내 손을 잡았다. “선생님 곁에 앉아도 되지요?”

나는 진지한 조그만 얼굴을 들여다보며 미소지었다.

“물론, 그렇고 말고.”

자미는 어린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사랑을 보여 주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예배당을 향해 나를 문쪽으로 끌고 갔다.

모임이 끝난 후, 자미가 나의 남편 데이브와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에 주일학교 회장이 다가왔다.

“자매님이 자미를 이미 만나 보셨지요. 자미가 자매님의 반에 들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를 저쪽으로 데리고 갔다. “자미가 그러는데 같은 온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군요. 어떻게 여기에 왔을까요? 감독단의 한 분이 데려 와 주신 건가요?”

그는 머리를 흔들고, 재미있다는 듯, 그러면서도 알 수 없다는 듯 미소지었다. “아닙니다. 그 애는 매주 일요일마다 예배당 문앞에 나와서, 모임이 시작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그러는 거예요.”

그가 다른 일을 보러 떠나자, 나는 옆에 앉아 자미가 남편과 말을 하는 것을 지켜 보았다. 무엇이 그 나이에 것처럼 열심히 교회에 참석하도록 영감을 주는가? 아홉 살이라는 나이에 그만큼 영적인 수준에 이르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나는 이 알 수 없는 어린 소녀에 대하여 좀더 알아 보기로 결심했다.

일과 집안 일로 바쁘게 지내다 보니 일주일이 곧 지나가 버렸다. 일요일이 되어, 초등학교 수업 시간이 다시 되었다. 모임이 시작된 후 오 분쯤 지났을 때, 나는 자미가 작은 숨소리를 내며, 뒷줄로 끼어들어 앉는 것을 보았다. 시간이 끝난 뒤에, 그녀는 평상시대로 말을 걸어 왔다. 자미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자미에게 농담을 걸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까지 교회에 처음으로 늦은 것 같구나! 줄곧 달려 왔던 것 같이 보이는구나.”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완전히 심각하게 내 말을 받아들였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어제밤, 친구가 나에게 와서 같이 자자고 하여, 오늘이 일요일이라는 것을 잊어 버렸어요. 그래서, 집으로 뛰어갔지만, 너무 늦잠을 잤던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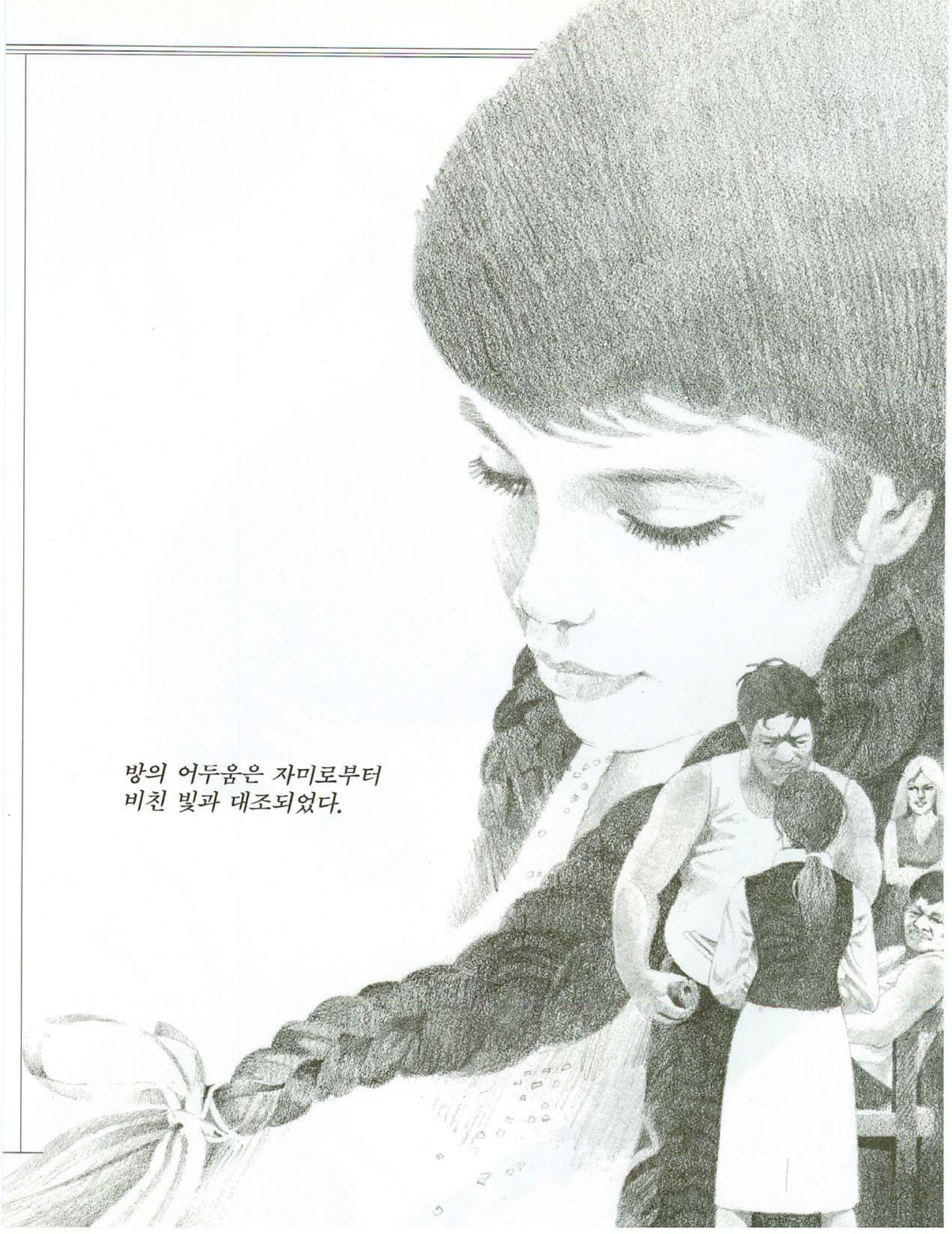
나는 어리벙벙했다. “너 혼자서 친구 집에서 자고 집으로 갔다는 뜻이니?”

그녀는 마치 고백하기라도 하듯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농담조로 말하던 나의 태도는 곧 사랑과 놀람으로 바뀌었다. 나는 자미의 배경에 대하여 더 알아 보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날 일요일 오후에 나는 몇 가지 반 준비 자료를 전하려고 자미의 집으로 갔다. 나는 문있는 곳으로 가 두드렸다. 문이 흔들리며 열리자, 나는 앞 방에서 흘러나오는 매캐한 담배 연기 냄새에 흠칫 놀랐다. 독한 술 냄새가 담배 연기와 합쳐져서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다. 입구에 낡은 바지와 내의를 입은 키가 크고 뚱뚱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넓적하고 수염을 깎지 않은 얼굴로 차갑게 나를 보고, 먼저 내가 가져간 초등학교 교재를 보더니, 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도 핏발이 서 있었으나,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머뭇거리자 깜박이지도 않고 나를



방의 어두움은 자미로부터  
비친 빛과 대조되었다.





쳐다보았다.

“자미가 여기 있습니까? 몇 가지 반 자료를 주어야겠는데요.” 반의 성격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의 얼굴 표정이 약간 부드러워진 것이었다. 그는 내가 무슨 물건을 파는 외판원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던 것 같다. 그는 내게 안으로 들어오라는 몸짓을 하여,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방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 가득히 담배 연기가 자욱하여, 숨을 쉴 때마다 목구멍이 따가웠다.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서 나는 낡은 갈색 소파와 의자를 볼 수 있었다. 남자 두 사람과 여자 한 사람이 거기 앉아 있었으며, 테이블에 맥주병이 잔뜩 널려 있는 가운데, 카드 놀이를 하고 있었다. 무거운 천이 뽁뽁히 쳐져 있었으며, 햇빛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으며, 천정에 매달려 있는 조그만 전구만이 빛을 밝혀 줄 뿐이었다.

여인은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머리 색깔은 자미보다는 밝은 색이었으며, 검은 입술과 눈화장 뒤로 모습이 자미와 닮은 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게 문을 열어 주었던 사람과 같은 옷차림이었던 남자들은 내가 그곳에 있지 않더라도 하듯이 노름을 계속했다. 여인에게 나는 되풀이해서 질문했다. “자미 여기 있어요? 교실에서 자미에게 줄 것을 가져 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발을 끌며 방에서 나갔다가, 몇 분 뒤에 돌아왔다.

“여기 없군요. 어딘가 밖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 모양입니다.”

“알았습니다. 이걸 좀 전해 주시겠어요? 그건 오늘 우리가 반에서 한 자료입니다.”

그녀는 그림과 책을 받아 의자 위에 놓았다. 문가에 서 있던 남자가 문을 열어 주어 나는 밝은 햇빛 속으로 나와 맑은 가을 공기를 마셨다.

나는 집으로 걸어오면서, 내 마음은 여러 가지 생각과 영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어린 소녀가 어떻게 해서 것처럼 영적인 성숙과 헌신을 간직할 수 있는 것인가? 다시금 나는 어두운 방의 분위기와 대조되는 자미로부터 나오는 빛을 보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교회에 참석할 수 있을 것인가? 그녀는 교실 밖에서 어떻게 복음에 대하여 배울 수 있었는가?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시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력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었는가?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한 성구가 내게 떠올랐다. “보라 그리스도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선악을 분별케 하였은즉”(모로나이사 7:16)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 모든 사람, 모든 여인, 모든 소녀, 모든 어린 소녀라는 말이 내 마음 속에 메아리쳤다. 자미에게서 비친 빛은 그녀 주위의 어둠에 의해서 얼마나 더

밝게 빛나는가? 나는 그녀의 조그만 빛이 더욱 밝게 빛나고 혼자 설 수 있을 때까지 도와 주기로 결심했다.

그 다음부터, 교회가 끝난 후, 자미는 우리 집에서 놀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말도 하면서 몇 시간씩 보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리는 그녀의 내적인 힘이 점점 더 커짐에 경탄하게 되었다. 그녀는 평정과 침착성으로 그녀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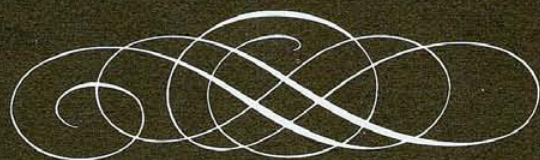
그 뒤, 우리가 어느 날 집으로 가고 있는 동안에, 갑작스럽게 그녀가 말했다. “선생님, 나 침례받고 싶어요. 나는 이제 아홉 살이고, 이제 침례받을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침례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녀의 크고 검은 눈이 강렬하게 나를 바라볼 때 그녀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게 되었다. 나는 그녀를 꼭 껴안아 주고는 둘이서 손을 잡고 집으로 뛰어갔다.

몇 달 뒤에 자미는 우리 지역에 지명된 선교사로부터 침례를 받았다. 그와 그의 동반자는 자미와 토론을 마쳤으며,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침례받는 것에 동의했다. 남편과 나는 자미의 어머니와 언니가 앉은 바로 뒤의 네번째 줄에 앉았다. 그녀의 어머니는 내가 그녀를 집에서 보았을 때보다 좀더 행복하게, 어딘가 달라 보였다. 처음에, 그녀는 예배당에서 약간 불편해 하는 것 같았으나, 모임의 분위기가 그녀를 편하게 해주는 것 같았다. 자미가 흰 옷을 입고 나왔을 때, 나는 사랑과 놀라움으로 가슴이 가득했다. 통로를 걸어 나가는 그녀는 아름답고 순결해 보였다. 우리 곁을 지나가는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인, 아홉 살 난 소녀의 행복한 미소를 우리에게 보내 주었다.

선교사들이 신앙과 순종에 관해 이야기할 때, 나는 여느 때처럼 열심히 듣고 있는, 그녀를 바라보고는, 그러한 말씀은 장로들이 말한 대로 영에 의하여 가르쳐지고 있음을 알았다. 이제 침례당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었다. 자미는 서슴없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계단을 내려섰다. 한 어린 아이의 행위를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누가복음 18:16)라고 하신 말씀의 새로운 의미로 기쁨이 온 전신을 감쌌다. 이어서 그녀는 확인받았다. 나는 영감받은 신권 소유자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녀의 가족이 그녀를 교회 회원으로 지지해 줄 것을 간구드리는 것을 듣고 감사했다. 나는 자미가 이제야 어떤 환경에서든 그녀의 일생을 통해 인도해 줄 동반자를 맞게 되었음을 알고는, 그의 기도에 특히 힘주어 “아멘”했다. 성신의 도움으로, 그녀의 조그만 빛은 참으로 빛날 것이며, 하늘 왕국에서의 큰 기쁨을 알게 될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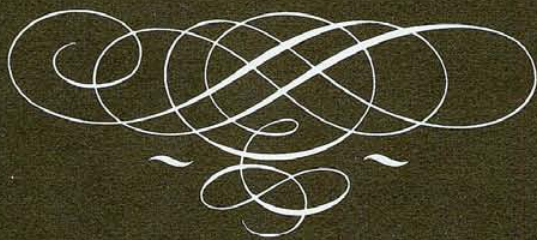
산드라 시 브링리는 일본에서 영어 교사로, 데이비드 알 브링리는 영어 교육 교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그들은 일본 고베 선교부의 토유가 지부의 회원이다. □



---

# 서신 의 동반하심

---



칼로스 이 애시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수** 많은 미혼인 말일성도에게 있어서, 특히 몇몇 독신 자매들에게 있어서, 구애와 영원한 동반자를 찾는 것은 미완성의 꿈이 되고 있습니다. 동반자를 고대하며, 영원한 동반 관계를 맺음은 복음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나, 합당한 배우자를 아무 데서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즉시 완전한 동반자를 연결시켜 주어 영원히 기쁨에 넘친 결혼 생활로 들어서게 하기를 소원하긴 쉽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해결책은 사탄의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생활 과정을 지시하여, 우리가 시험하고 선택한 것과는 다르게 행동함으로써, 우리 아버지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우리의 발전을 막기를 원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육신의 동반자와 애정을 나누는 것은 여러분이 혼자 지시하고 계획할 수 있는 어떤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통제하는 위대하고 영원한 의미에서의 동반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연령 또는 성별과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얻을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동반 관계입니다. 그것은 외로움을 치유해 주고, 뛰어나도록 동기 부여를 해주며, 삶의 의미를 주는 동반 관계입니다. 그것은 신화의 한 분이신 성신, 성령, 보혜사, 계시자, 성결케 하시는 이, 주님의 영광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은 혼자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결코 혼자 있지 않으리라는 것을 확신시켜 줄 동반 관계입니다.

인간 대 인간의 현세적인 동반 관계는 중요하고도 필요한 것이며, 그들이 사랑과 상호 존경심으로 결속되어 있다면, 그들은 본질적으로 하늘의 속성에 가깝게 되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 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동반 관계는 성신의 영향력이 없이는 어느 정도 헛되고 의미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현세적인 동반 관계도 인간을 주님의 영에 결속시키는 중요성을 가리거나 초월하지는 못합니다.

“저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함”

그리스도께서 니파이인들에게 가르치시고 기도하였을 때,

“저들은 각기 저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였으며, 성신이 저들에게 임하기를 원하였”(니파이삼서 19:9)음은 뜻깊은 것입니다. 교회 회원인, 우리는 신앙과 회개와 침례의 필수적인 단계를 거쳤으며, 성신의 은사를 받기 위해 권능을 부여받은 손이 우리 머리 위에 놓여졌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이나 동반자 사이의 사랑이 연약한 식물처럼 돌보아지고 가꾸어져야 하듯이, 성령과의 동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로 키워 주어야 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나는 아름다운 소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는 그녀의 사랑과 영원한 동반 관계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최선을 다해 행동하고, 말했으며, 최선을 다해 구애하고 그녀의 호의를 사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녀가 내게 약속을 해준 이후로도, 나는 구애를 계속해 나갈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내가 그때 소망했고, 지금도 역시 그러한 것은, 그녀를 기쁘게 하고 감정을 상하게 할 일을 피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내게 영감이 되고, 내가 더 높고 고상한 수준에서 생활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성신의 동반 관계는 이와 상당히 흡사한 방법으로 키워지는 것입니다. 성신의 영향을 받고 동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그의 면전에 합당하게 되어야 합니다. 성령을 받고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나는 다섯 가지로 봅니다.

### 1. 우리는 우리 몸을 깨끗이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든 우리 육신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혜의 말씀에 따라 생활해야 하며, 생식의 능력을 오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신체의 질병 또는 기타 적을 없애기 위해 가능하다면 무슨 일이라도 해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린도전서

# 외로움을

치유해 주고, 뛰어나도록 동기 부여를 해주며, 삶의 의미를 주는 동반 관계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은 혼자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결코 혼자 있지 않으리라는 것을 확신시켜 줄 동반 관계입니다.

3 : 16~17)

## 2. 우리는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각종 퇴폐적이며 감각적인 생각 및 기타 사탄의 영향력에 맞서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교리와 성약으로부터, 우리는 이 충고와 약속을 받습니다. “쉬지 말고 덕으로써 네 생각을 장식하라. 그리하면 주의 면전에서 네 신임이 두터워지리니, 신권의 교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처럼 네 영육을 적시리라. 성신은 변치 않는 네 동반자가 되며”(교성 121 : 45~46)

악한 마음과 거기서 나오는 더러움보다 더 혐오감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이 두 마음일 때, 그의 마음이 악한 영과 함께 할 때, 성령의 동반하심을 누리기를 희망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3. 우리는 신앙을 행사하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거할 장소를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영의 나타내심을 받을 권리를 갖지 못하게 된다는 말을 듣습니다. 모로나이는 병고침과 방언을 포함하여, 영의 은사를 솔직하게 말한 다음 주의를 주었습니다. “내가 이야기한 바 온갖 영적인 은사가 세상에 존재하는 한 인간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결코 다하여 없어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기억하라.”(모로나이사 10 : 19)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할 때에만 “성신이...(우리) 마음에 임”(모로나이사 7 : 32)하심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신이 나타내는 자들...그가 간증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을 인식하고 인정하지 않은 채 어떻게 성신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은 성신의 능력에 우리의 생을 개방하는 예배, 참된 예배에 속하는 것입니다.

## 4. 우리는 모든 사악함, 온갖 종류의 악행을 피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신앙을 잃게 되면 주님의 은사도

그칩니다. 사악함이 나타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엘마는 “더러운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엘마서 11 : 37)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의 영과 영구한 관계를 이룰 수 없습니다.

## 5. 우리는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영은 인간에게 기도하기를 가르치고 권합니다.(니파이이사 32 : 8~9 참조)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령이란 누구이며 어떻게 우리 면전에 나타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1~3절 참조) 하나님의 영은 인간에게 선을 행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도록 권합니다.(이더서 4 : 11~12; 모로나이사 7 : 16~17 참조) 그러므로 기도와 경전 연구와 의로운 생활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회의론자나 복음의 초심자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왜 성신을 구하는가? 왜 그와 동반하고자 해야 하는가? 그 안에는 나를 위한 무엇이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주님의 영을 알며 함께 한 사람들의 간증을 받아들인다면 풍요로울 것입니다. 이러한 간증은 성신과 함께 하는 가치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특정한 환경에서 무엇을 하기를 기대하는 온전한 능력과 완전한 선견지명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니파이가 지시한 대로 해야 합니다. “너희가 주의 길에 임하여 성신을 받으면 성신은 너희가 행하여야 할 모두를 너희에게 보여 주시리니,”(니파이이사 32 : 5)

## “여러분은 분별력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분별력-진리를 알아내는 능력을 갖고자 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식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행하는 동안, 모로나이는 이렇게

# 여

러분은

완전한 예견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분별력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느끼고, 아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간증합니다. “성신의 권세로써 너희가 온갖 진리를 알지니,”(모로나아서 10 : 5)

내가 텍사스에서 선교부장으로 있었을 때, 어떤 선교사가 그의 간증을 읽고 집으로 가기를 원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몇 가지 조사를 해보니 그의 부름의 신성함에 대한 의심이 한 구도자에 의해 그 젊은이의 마음 속에 심어졌음이 밝혀졌습니다. 소위 구도자라는 사람과 함께 한 접견에서, 나는 그 사람이 다른 교회의 목사였으며, 대학생을 가장하고 진지한 물본교의 구도자인 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특별한 분별력을 경험했습니다. 내게 계시된 지식에 맞부딪친, 그는 갈등을 느끼고 자신의 기만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그 기만자에게서 빠져 나와 진리를 안, 선교사는 그대로 머물러 명예로운 선교 사업을 마쳤습니다.

한번은, 어느 선교사가 그의 선교사 기간의 마지막 주일에 이 년전 선교 사업을 시작할 때 내가 그에게 허락해 주었던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선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많은 범법을 했기 때문에 내 편에서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허락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시 장로님, 장로님은 내가 필요한 회개를 하고 내가 철저하게 순종할 것이며 부지런히 일하리라는 것을 약속한 후에 선교 사업을 나가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나는 열심히 일했으며 모든 규칙에 순종했음을 장로님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나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느낍니다. 나는 완전히 깨끗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헌신적인 봉사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과 밀접한 관계를 이룸으로써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련하는 불을 통과해 나왔으며 불순물은 모두 타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듣고자 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느끼고, 알 수 있는 능력을 갖고자 하십니까?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서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네 마음 가운데 거할

성령으로 네 정신과 마음에 말하리라. 이것이 계시의 영이니”(교성 8 : 2~3)

나는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이 성전 모임에서 간증을 끝내시며,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가 말씀한 것을 들을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며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씀을 하는 동안 어떤 것을 배웠으며 이러한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영향력을 훌륭하게 공개적으로 시인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은사, 예를 들어, 병 고치고, 병고침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예언자 모로나이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 모든 은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하여 오며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사람 하나하나에게 전하시느니라.”(모로나아서 10 : 17)

여러분은 확신에 찬 웅변의 능력…천사처럼 말하는 능력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니파이의 질문에 유의하십시오. “너희가 성신을 받은 후에 천사의 방언을 말할 수 있으리라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니파이서 32 : 2)

삼십 년 전, 내가 근동 지역에서 선교 사업을 하고 있었을 때, 나의 동반자와 나는 분할되고 배도로 인하여 상처받은 지부를 방문하라는 지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제를 겸손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불만을 품은 파당들을 포함한 중요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나의 동반자가 선택되어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시 함께 되기를 희망한다는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금식을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난 뒤, 그는 자신있게 섰으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천사의 말로 말했습니다. 그 어리고 미숙한 장로의 말은 그보다 더 나이많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 굶아 터진 상처를 치유해 주었으며, 참회하게 하고, 교회의 지부를 실제로 구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유혹을 물리치는 능력을 원합니까?”

# 육

신의 인간은  
놀라운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능력은 성신의 동반하심에  
따르는 것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유혹을 피하고 물리치는 능력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엘마와 바울이 제시한 대로 행하십시오. “쉬지 않고 기도하여 — 성신의 인도로 — 견디어 낼지어다.”(엘마서 13:28)

여러분은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에서 완전한 평화와 확신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신을 여러분의 동반자로 삼으십시오. 여러분도 역시 니파이와 리하이가 받은 확신을 받게 될 것입니다. “태초로부터 나와 함께 하던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너희가 믿음에 평화롭고 다시 평화로울지어다.”(힐라맨서 5:47)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연스런 능력 이상으로 행할 힘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에서 보이지 않는 능력의 도움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계획하지도 않았던 것을 말할 수 있게 하는 속삭임을 받는 능력인, 확신을 주는 권능을 가지고 말하는 권능을 일컫는 것입니다. 나는 영향을 받는 권능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인다면, 여러분과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남자든 여자든 육신의 인간은 놀라운 능력과 잠재력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러한 능력이 아무리 크다 해도, 그것은 성령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성령과 동반하는 것에 관한 이러한 말씀은 여러분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사는 소수의

몇 사람만을 위해 마련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사도인가 또는 집사나, 상호부조회 직원인가, 초동협회 교사인가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스스로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그 약속을 받게 됩니다.

이 거룩한 동반자에게 여러분을 소개하는 것이 불완전하게 보인다면, 여러분의 침례와 확인을 다시 살펴보고, 여러분이 하도록 명령받은 대로 실제로 성령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체적인 청결과 깨끗한 생각,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신앙의 범위, 온갖 죄를 피하고자 하는 경향, 여러분의 기도와 연구 습관에 치밀하게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때때로 여러분이 참으로 성신을 알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은 현명한 일입니다. 영적인 은사와 권능을 얼마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지 충분히 사색해 보십시오. 예견, 분별력, 성결케 됨, 계시, 영적인 은사, 천사의 말씀, 확신이 주는 평안 및 그에 부수되는 축복이 여러분의 생활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 보십시오. 여러분의 일상 생활에서 영적인 경험이 흔히 나타나고 있는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어떤 면에서든 부족한 점을 찾게 되면, 변화시키는 용기를 가져 여러분의 삶에서 질서를 찾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러한 모든 일을 행한다면,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동반자, 성신을 함께 하게 되므로,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될 리 없습니다.□



**힘** 든 하루의 일을 마치고 집에 도착한 나는 아내가 칠십 오킬로미터쯤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우리 몇 아이들을 찾아 보고자 떠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저녁 늦게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쪽지를 남겨 놓았다.

나는 먹을 것을 준비하여 막 앉으려고 할 때, 창문을 통해서 나의 가정 복음 교사인 스펀 켄슨과 엘 디 메이어가 문쪽으로 오는 것을 보았다. 나는 무언가 먹을 참이었다고 말하며, 건성으로 그들에게 인사하였다. “몇 분 후에 올 수 있겠어요?” 그들은 쾌히 대답했다. “우리는 약속을 하려고 전화를 했지만, 받지는 않더군요. 그래서 집으로 찾아 온 것입니다. 다른 가족을 방문하고 다시 오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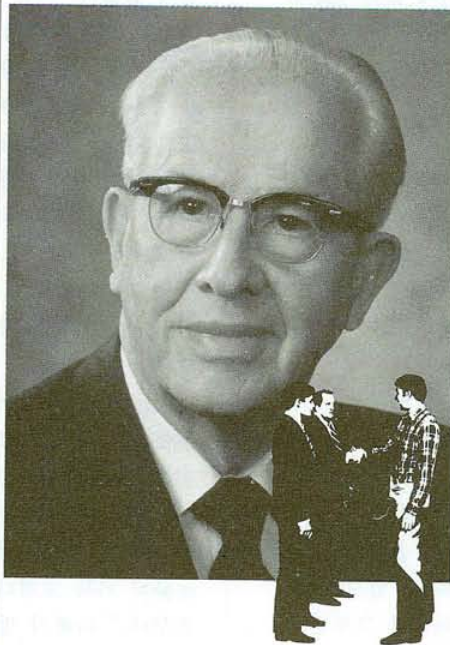
한 시간 반 후에, 그들은 돌아왔다. 즐겁게 인사를 나눈 후에, 스펀은 웃으면서 말했다. “조지, 벤슨 대관장께서 쓰신 기사를 읽고 싶습니다.” 흥미있게 들었으나, 나는 피곤했으며 곧 흥미가 시들어지는데 그가 말을 덧붙였다. “절망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열 두 가지 방법을 살펴보기로 하겠어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성도의 빛, 1987년 3월호) 나는 잠시 동안 그런 처지로 들어서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첫번째는” 스펀은 말을 끊고 책에서 눈을 떼고 내 눈을 들여다 보면서 말했다. 그 순간 우리는 뜻이 통하는, 그러나 소리없는 의사 교환을 했다. 나는 이 신앙깊은 사람을 교회에서 만난 적이 많았던 것을 생각했다. 스펀은 나를 보고는 악수를 하며, “조지, 지금도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 질문이 나올 것을 알고 있던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몸을 곧게 세우고는 품위를 갖추고 말했다. “그렇습니다. 스펀, 나는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진심으로 알고

가정 복음 교사를 통해서

# 벤슨 대관장이 우리집을 방문함

조지 디 듀란트



있습니다.”

그는 내 마음 속을 들여다 보기라도 하듯이 웃으며 “좋습니다, 조지.”라고 말하곤 했다.

스펜은 절망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기사에서 첫번째에 들어서며 말했다. “첫번째, 조지, 절망한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우리는 왜 회개해야 합니까?” 하고 질문했다. 나는 “물론경에는 ‘절망은 죄로 말미암는도다’(모로나아서 10 : 22)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고 말했다.

스펜은 기사에 나와 있는 각 요점을 읽으면서, 그는 잠지에서 눈을 떼고 나를 똑바로 보면서 “조지, 이걸 바로 형제님 얘기같이 들리는 데요.” 하고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진실한 칭찬으로 나 자신에 대하여 좋은 느낌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가 열번째에 이르렀을 때, 나는 나 자신이 그에게 끝내 주기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것을 알았다. 방 안에는 위안을 주는 영이 가득했다.

스펜은 열 두 가지 사항을 살펴본 후에, 책을 덮고 내게 미소를 보였다. “조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내게 생각되는 것은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이 방금 나의 집으로 와 나를 찾아 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몸소 오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를 대신할 특별한 사자를 보내셨던 것이었다. 나는 내가 나의 가정 복음 교사의 입을 통해 예언자가 말씀하신 말씀을 들었으며, 그 메시지가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음을 알았다.

그런 다음, 우리는 현관을 향해 걸어 가면서, 스펀은 방문 중에 무엇인가 일어 났음을 감지했으며, 우리가 악수를 하는 동안 그의 눈에는 이슬이 축축히 맺혔다. 나의 가정 복음 교사들이 간 다음에도, 그들의 메시지는 여전히 나에게 남아 있었다. 그들이 왔을 때만 해도 나는 조금 절망해 있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았다. 이제 나는 영적으로 새롭게 되었으며 나의 의무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다.

그날 밤 늦게, 절망을 극복하는 데에는 열 세 가지 방법이 있음을 나는 알게 되었으니—그것은 가정 복음 교사가 와서 여러분에게 사랑과 가르침과 축복을 전하는 것이었다. □

유타주 프로보에 있는 선교사 훈련원 원장인 조지 듀란트는 프로보 유타 센트럴 스테이크에 있는 파크 와드의 감독이다.

**내**가 농장 일을 막 끝나며 가고 있을 때 엄마가 나를 부르셨다. 소를 목장 안으로 몰아 넣고, 토끼니 닭, 돼지, 그리고 말에게도 모두 먹이를 주었다. 우유 세 강통을 트레일러에 실어 낙농가에 가서 갈 준비도 해 놓았다.

1936년 당시에 나는 열 다섯 살로, 우리 열 세 명의 대가족들은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었다. 형들 중에 한 사람은 선교사로 나가 있었고, 여덟 형제는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나머지는 집안 일을 돌보는 어머니를 바쁘게 했다.

엄마가 말씀했다. “제이, 오늘은 내가 학교에 말해 놓을 테니 아버지가 일하시고 계시는 피에프이사까지 차를 쪼מן어 타고 가거라. 이 편지를 아버지에게 전해 드려야겠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네게 시키지 않을 것이다.” 피에프이사는 기차 엔진과 자동차를 수리하는 곳이었다. 아버지는 그곳에서 일하며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였다.

엄마는 내게 봉투를 전해 주었다. 그것은 내가 하루 동안 학교에 나가지 않는 것을 정당화시켜 주는 아주 중요한 편지였음이 틀림없다. “이런 일을 시켜서 미안하다. 제이,” 하고 엄마가 말했다. “그러나 아빠에게 이 편지를 전해 드릴 다른 방법이 없구나.” 우리 농장에 전화선이 없었기 때문에 엄마는 아빠에게 전화를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아빠가 일하는 곳은 약 이십 사 킬로미터쯤 떨어진 곳이었다. 나는 상쾌한 여름의 아침 공기 속에 도로를 따라 삼 킬로미터쯤 걸어 가다가, 어떤 사람이 차를 태워 주어서 다음 마을로 갔다. 마을을 걸어서 빠져 나온 나는, 다른 차를 빌어 타고 피에프이사의 입구로 나 있는 흙길까지 왔다. 나는 차에서 내려, 운전자에게 감사하고, 입구까지 이십 분을 걷기 시작했다. 나는 걸으면서 아빠가 것처럼 자주 말씀한 장소, 아빠를 것처럼 피곤하게 하고 더럽게 만드는 곳, 엄마가 우리같은 대가족에게는 몹시 중요한 곳이라고 말씀한 일터를 둘러보았다.

바로 이 때문에 아빠는 우리와 저녁과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다. 바로 이런 이유로 엄마가 우리에게 소젖짜는 법이나 건초와 곡물을 쌓아 올리는 법, 물 대주는 법, 마구 채우는 법, 울타리를 세우고 닭장을 짓는 등, 기타 농장에서 해야 할 수많은 일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다. 또한 바로 이런 이유에서 엄마는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것을 것처럼 잘 가르쳐 주고 엄마와 함께 일할 때 성경과 물몬경 이야기를 말해 주었던 것이다. 아빠는 이곳에 계셨던 것이다. 아빠가 하는 일은 중요하고도 힘든 일이었다.

나는 입구로 들어가다가, 많은 철로 양쪽에 큰 건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철로 위를 달리는 차량이

덜컹거리며 함께 연결될 때 큰소리를 냈다. 또한 증기 기관, 신호 종소리, 경적 소리, 압축 공기 해머나 기타 철도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내는 소리가 가득했다.

갑자기 요란한 싸이렌 소리가 울리더니, 다른 모든 소음은 사라졌다. 점심 시간이었다. 구석 구석에서 사람들이 나타났으며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아빠를 찾는다지? 나는 어리둥절했다.

나는 대문을 지나 눈에 띄는 가장 가까운 작업장으로 걸어갔다. 그곳에서 누구든 만나는 사람에게 방향을 물어볼 요량이었다. 흰히 트인 곳에 자재와 장비가 한 무더기 크게 쌓여 있었다. 나는 깨끗이 치워진 곳을 둘러 보다가, 곧 아빠를 알아 보았다. 나는 멍뭉치고 조용히 섰으며 다른 사람은 아무도 눈에 띄지 않는 느낌이 들었다. 우리 자신의 세계에서, 마치 아빠와 나만 있는 것처럼 느껴졌으며, 나는 내가 본 것을 언제든지 감사하게 될 것이다. 아빠는 자재를 쌓아 놓은 무더기에 등을 대고, 모자를 옆에 두고, 바닥에 다리를 쭉 펴고 앉아 있었다. 점심 도시락을 무릎 사이에 놓고, 두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과 그 밖에 다른 많은 것에 감사드리고 있었음을 아빠가 기도드리는 것을 내가 보며 걸린 시간과 받은 느낌으로 인해 확신할 수 있었다. 나는 말없이 서 있었으며 줄곧 아빠의 모습을 지켜 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여기는 **아빠가 무엇인가 나타내 보일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아빠는 정말 믿는 대로 행하시는 것이다** 하는 메시지가 깊이 자리잡았다. 기도를 끝내고 눈을 뜬 아빠는 곧 나를 보았다. 아빠의 얼굴에는 웃음이 번졌으며, 내가 다가가자 아빠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아, 제이구나. 네가 여길 오다니 정말 좋구나.” 아빠가 말했다. “여기 앉아라.”

지금까지도, 나는 아빠에게 전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모르나, 아빠가 나에게 준 메시지는 결코 잊을 수 없었다. □

# 아빠의 메시지

제이 엘 패커드

나는 조용히 서서 골똘히 바라보았다.  
아빠는 바닥에 앉아 있었다.



# 알 수 없었던 친부모

줄리 더너웨이

**계**보 사업과 선교 사업은 병행하는 것이다. 두 사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죽은 자와 산 자 모두에게, 복음과 구원의 의식을 가져다 준다. 나의 선교 사업은 내게 두 가지를 다 할 기회를 주었다.



한국에서 선교본부에 도착한 직후에, 선교부장이 내게 질문한 첫번째 질문은 “자매님이 여기 있는 동안 계보 사업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하는 것이었다. 그런 질문을 받고 놀라기도 하고 고무를 받은 나는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나는 1958년에 한국의 원주에서 태어났으나, 후에 미국 가정에 입양되었다. 나는 열 네 살 때 교회에 들어왔다. 일 년 뒤, 고등학교를 마친 뒤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던 나는 축복사의 축복을 받기로 결심했다. 먼저 축복사에게 말씀드렸더니, 그는 나에게 내가 알고 싶은 것에 대하여 금식하고 기도하라고 충고해 주었다. 나는 그렇게 했으며, 후에 축복을 받고 그에 담긴 약속에 대하여 좋은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없는 구절이 있었다.

“그대는 이제까지 알 수 없었던 친부모님인 그대의 가족을 위해 그리고 그들을 대신하여 일을 수행하는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대가 가족 기록을 찾는다면, 위로부터 도움을 받게 될 것이며, 그대가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대의 시간과 재능을 바치는 데 충실히 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대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나는 계보 사업을 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나, “이제까지 알 수 없었던 부모님”에 대한 부분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내가 아는 사실은, 내가 입양되었을 때 고아였다는 사실이다.

대학에서 마지막 학기 동안에, 진실하게 영을 추구하는 기도를 드린 후에, 나는 선교 사업을 해야겠다는 강한 인상을 받았다. 나는 선교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냈으나, 한국으로 가라는 부름을 받게 될까 걱정이 되었다. 나는 특별히 그곳에 가기를 원하지 않았다. 몇 주일이 지난 뒤, “한국 서울 서 선교부”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나는 부름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으나, 시일이 가까이 다가오자, 축복사의 축복에서 약속받은 것이 생각났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계보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나는 한국으로 가야 했다.

석 달이 지났다. 나는 한국어를 배우는 데 열중해 있었기 때문에, 계보 사업은 손도 대지 못했다. 어느 날 나는 나의 한국인 선교사 동반자와 다른 한국 선교사에게 내가 계보 탐구하는 것을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그들이 쾌히 응해 주었으며, 그래서 준비일에 우리는 나의 입양을 취급한 기관을 찾으러 갔다. 내가 찾으려는 것이 계보 목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직원은 그들의 기록을 살살이 찾아 내 기록을 찾았다.

## 다른 어린 소녀

내 기록 옆에는 나의 아기 때의 사진과 아주 비슷하게 생긴 다른 여자 아이의 사진과 기록이 있었다. 나는 아마 기록이 뒤섞인 것이겠지 하고 생각했으나, 직원은 한글로 형제임이라고 우리 이름 옆에 써어진 것은 우리의 자매 관계를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에게 자매가 있었던 것이다!

입양 기록에는 우리의 미국식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으므로, 나는 내가 새로이 찾아 낸 오클라호마에 사는 자매에게 편지를 써서, 내가 한국에 있는 이유와 우리 기록을 찾고 있는 이유를 설명했다. 나의 집 주소가 그후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쪽 주소도 바뀔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녀도 새로운 생활과 가족이 있으므로, 그녀가 나나 내가 찾는 일에 흥미를 갖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에도 대비하였다.

한 달 반이 지나도 아무런 회신이 없었다. 나는 그녀로부터 소식을 듣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으나, 희망을 잃지 않았다. 미국에 있는 나의 가족 역시 그녀에 관한 것을 듣기를 열망했다. 내 편지에 회답이 없게 되면 아버지도 그녀를 찾아 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던 중,

2월 14일에 나는 나의 자매인 릴라 류 밀러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그녀의 부모는 오클라호마에 있는 주소지에서 그대로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편지에 남편과 어린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도 보냈으며, 나를 만나 보기를 몹시 고대한다고 썼다.

우리 기록에서 또한 밝혀진 것은 원주에 있었던 고아원 이름으로 그곳으로부터 우리가 기관으로 보내졌던 것이다. 그것은 원주 양녀(노)원장이라는 곳이었다. 한국어 사전에서 그 명칭을 제대로 번역해 낼 수 없었으나, 두 가지 가능성은 있었다. 양녀는 입양된 딸을 그리고 양노는 노인 수용소를 의미한 것이었다.

나는 원주에 있는 몇몇 선교사들에게 부탁하여 1950년대 말과 60년대에 입양 기관과 거래한 고아원을 찾아 봐 달라고 했다. 그러나 몇 달을 조사해 보았으나 허사였다.

#### 고아원인가 양로원인가

그 즈음에, 나는 서울 근교에서 봉사하고 있었다. 당시 서울 서 스테이크 부장단의 일원인 최 동헌 부장이 내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다. 한번은 그의 집에 들렀을 때, 나는 내가 축복사의 축복에서 받은 약속을 말했다. 그는 나를 도와 주겠다고 했다. 몇 주일 후, 준비일에 나의 동반자가 된 그와 나는 무엇이든 찾아 볼 수 있는지 알아 보기 위해 원주로 출발했다.

어느 고아원에서, 우리는 캐나다인 기독교 선교사인 오코너 자매가 고아들의 기록을 갖고 있었으나, 1960년대에 캐나다로 돌아갔다는 말을 들었다. 우는 한 군데 더 갈 곳이 있었으니, 우리 기록에 고아원으로 적힌 원주 양녀 원장이었다. 그러나 그곳은 고아원이 아니라, 양로원이었다. 나는 내가 전에 그곳에 있었던 것과 같은 참으로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나는 사실상 혼동되었으며—왜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우리가 조사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으로 보였으므로, 실망이 되었으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최 부장과 나는 기관으로 되돌아가 나의 기록을 재검토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기록을 다시 살살이 살펴본 우리는 양식의 한쪽 구석에 한국어로 “오코너”라는 이름을 쓴 것을 찾아 내었다. 나는

양로원이 전에는 고아원이었으며, 실상 나의 자매와 내가 입양될 때까지 머물러 있었던 곳이었음을 알았다. 이제 우리는 나의 자매와 나의 출신이 어디라는 것을 알았다.

최부장은 그후 서울의 한 일간지에 나의 가족을 찾는 기사를 신자고 제안했다. 그는 한국 전쟁 후로, 잃은 가족을 찾으려는 많은 사람들이 신문을 이용했다는 말을 했다. 우리는 한 기자와 만나, 우리가 아는 한도 내에서 나의 자매와 나와 우리 역사에 관한 묘사를 간단히 썼다. 그 기사가 나가자마자 우리는 우리가 그들 가족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사람들로 부터 많은 전화를 받았다.

#### 이상한 전화

한번은 이상한 전화가 걸려 왔다. 나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으나, 동반자의 도움을 받아, 그의 이름이 고 인수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원주 근교의 조그만 마을인 실림에서 전화를 했다. 그는 1950년 말에 입양을 위해 그의 가족이 포기한 쌍둥이 여자 아이에 대하여 말했다. 나는 나의 자매와 내가 쌍둥이었다는 것에 의심이 생겼다. 우리의 아기 시절의 사진이 비슷하기는 했지만, 서로 생일이 달랐던 것이다.

그러나 고 인수는 우리에게 만나 보자고 했다. 그는 가능하다면, 서울에 살고 있는 그의 아들 고 현규와 먼저 만나 보라고 했다. 고 현규와 그의 어머니가 쌍둥이 여자 아이를 고아원에 맡겼던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 모임을 주선했다.

그 사람의 이야기가 참된 것이라면? 그러면 고 현규라는 사람은 나의 친척이 될 것이다. 나는 그때까지도 그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내가 고씨와 그의 부인을 만났을 때, 그는 나를 한참 바라보더니 내가 그의 고모와 똑같이 보인다고 말했다. 눈에 눈물이 가득한 채,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입양시키기 위해 쌍둥이를 포기했던 것을 사죄했다. 나는 믿기가 어려웠으며 그림이나 기록이든지 증거를 보여 주기를 원했다. 그리고 생일이 다른 것은 어떻게 된 것일까?

고씨는 우리를 그의 집으로 초대하여 나에게 가족 앨범을 보여 주었다. 불행하게도, 그는 그가 나의 어머니라고 부른



제목 페이지 : 저자의 어머니가 뒷줄 중앙에 부모 사이에 앉아 있고(오른쪽) 그녀의 오빠와 그의 아내(왼쪽), 저자의 사촌, 고 현규가 오른쪽 끝 바닥에 앉아 있다. 더너웨이 자매와 그녀의 쌍둥이 자매는 청평에 있는 이 집에서 태어났다. 위 왼쪽 : 줄리 더너웨이가 오빠와 아버지와 함께 그녀의 어머니의 무덤 근처에 서 있다. 가운데 : 더너웨이 자매의 신문 광고에 응답한 고 인수씨(오른쪽)와 그의 아들 고 현규. 오른쪽 :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한 더너웨이 자매가 사촌 고 석태씨(왼쪽에서 두번째)의 침례식에 참석했다. 45페이지 큰 사진 : 더너웨이 자매의 아버지가 사는 마을 근처의 풍경. 위 : 선교 사업을 하는 중에, 더너웨이 자매(왼쪽에서 두번째)가 새로 찾은 오빠, 김 도윤씨(그녀 옆에 서 있는 사람)의 침례를 증거하는 순간. 아래 : 더너웨이 자매와 그녀의 남편, 켈리가 한국에 나와 그녀의 아버지와 계모를 만나고 있다.



여인의 사진을 갖고 있지 않았다. 나는 아직도 의심이 풀리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실림에 있는 가족에게 전화를 하고 그들을 방문하기로 계획했다.

실림은 조그만 마을로, 버스 정류장도 없는 곳이었다. 그러나 버스 운전사는 우리를 위해 특별히 세워 주었다. 깨끗하고 신선하고 따뜻한 공기 속에서 우리는 양쪽에 논이 있는 흙길을 걸어 갔다. 고 현규씨가 길을 안내했다. 우리는 마을로 들어갔다. 조그만 상점과 몇 채의 집이 있을 뿐이었다. 우리는 길을 건너 갔으며 한 노인이 문 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작은 키에 햇빛에 타서 피부가 갈색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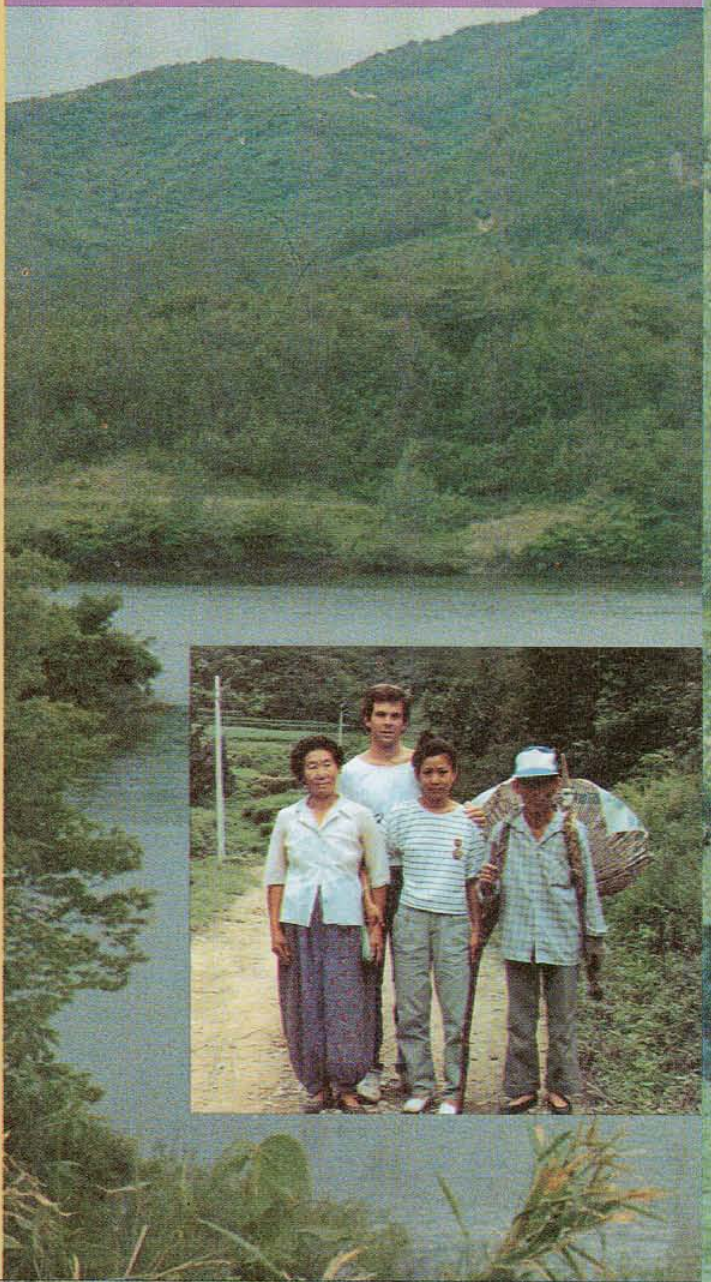
#### 나의 한국인 할아버지?

그는 기뻐하며, 나를 뚫어지게 쳐다 보았다. 그의 집은 토담집이었다. 우리는 집으로 들어가 신을 벗고, 마루에 올라 방으로 들어갔다. 한 벽에는 가족의 소유물, 상자 몇 개와 접는 상, 방석 몇 개가 놓여 있었고, 옷가지가 걸려 있었다.

온 가족이 내 주위로 모여 들었다. 그들은 나를 보고 내 눈과 얼굴 모습이 그들이 나의 모친으로 생각한 사람과 똑같다고 말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이 포기한 쌍둥이 여자 아이 중 하나라고 확신했다.

내가 그들의 기록을 보자고 하자, 그들은 먼지가 쌓인 사진 앨범을 가져 왔다. 그들은 특별히 한 장의 사진을 펼쳐 들었다. 한 노부부가 노랑게 바랜 가족 사진의 한쪽에 있었다. 그들의 딸—그들이 나의 어머니라고 한—은 가운데 있었고, 그들의 아들—고 인수—과 그의 아내도 다른 쪽에 있었다. 고 현규는 몇몇 다른 아이들과 함께 앞줄에 있었다. 나는 나와 그들이 나의 모친이라고 주장한 사람 사이에 닮은 점을 찾을 수 없었으나, 나와 노부부 사이에 닮은 점이 있었다. 이 여인이 과연 나의 모친이었는가? 여인은 작고 약하고 스물 여섯이라는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였다.

고 인수는 우리에게 그 뒷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그의 여동생, 고 인순은 다른 마을 태생인 김 진구와 결혼했다. 그들 부부는 청평으로 이사했으며, 거기서 얼마 후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낳은 후 일 년 뒤에, 딸 쌍둥이를 낳았으나,



그후 얼마 안되어 세상을 떠났다. 여동생의 사망 소식을 들은 고 인수는 청평으로 가서 세 아이를 실림으로 데려왔다. 자신의 아이들도 몇이나 되는 데다가 그들을 다 부양할 수 없었던, 그는 쌍둥이를 고아원으로 보내기로 결심했다. 그곳의 직원들이 쌍둥이는 함께 입양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생일을 다르게 기록했던 것이다.

한편, 나의 부친 김 진구는 다시 결혼했다. 아이들을 데리러 온 그는 비로소 쌍둥이는 입양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의 아들을 청평으로 데려 갔다. 고씨는 김씨 가족이 아직도 그곳에 살고 있으나, 아버지가 몹시 편치 않다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가 이야기를 다 마치자, 나는 고씨에게 다른 가족 기록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 고 인수씨는 방 한쪽에 있는 설함쪽으로 가서 노랗게 바랜 책을 꺼냈다. 책을 펴본 나는 한자와 한글로 쓰인 가족 기록을 보았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중한 보물인가! 나는 나의 출생을 알아 냈다는 느낌을 받고 실림을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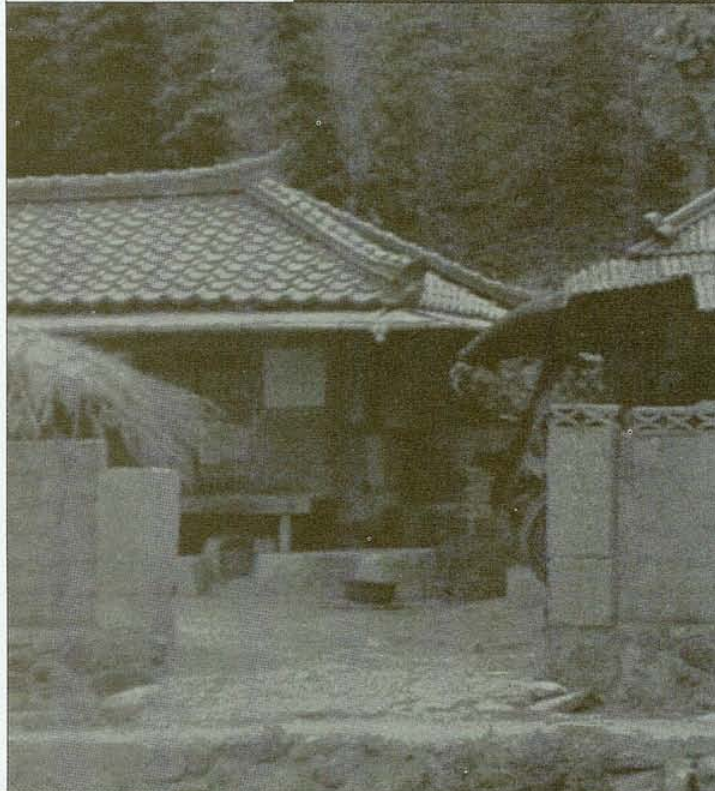
### 부친을 찾으러

다음 단계는 나의 부친과 오빠를 찾아 보기 위해 청평을 가 보는 것이었다. 청평은 제천 남서쪽에 있는, 비교적 한적한 곳이다. 며칠 후에 우리는 시외 버스를 타고 비포장 도로를 달려 눈길을 지나 그곳에 갔다. 그곳에 도착한 우리는 면사무소에서 물어 보았으나, 직원은 김 진구라는 사람은 들어 보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기록을 조사해 보기 위해 학교에도 가 보았다. 학교에는 아들의 기록이 없었으나, 우리는 그 가족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났다. 그는 우리에게 그는 아들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우리는 다시 조사해 보고, 대구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기록을 찾아 냈다.

서울에 돌아온, 최부장은 대구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과 협의했으며, 그들은 학교 기록에서 두 개의 주소를 찾을 수 있었다. 하나는 영덕으로, 김 진구가 나의 모친과 결혼하기 전에 살았던 곳이며, 다른 하나는 대구에 있었다. 우리는 두 곳을 다 조사해 보기로 했다. 우리와 함께 간 최 부장의



위 : 더너웨이 형제  
자매(왼쪽에 앉은 사람)가  
사촌을 방문하고 있다.  
오빠인 김 도운과 그의  
아내 정 영자와 함께 한  
더너웨이 자매. 그녀의  
부친 마을에 있는 집들.





아들은 우리가 먼저 영덕을 가 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마을에 도착한 우리는 경찰서로 갔다. 근무중의 경찰이 마침 그 가족을 알고 있어 우리를 그들에게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우리는 밭과 산을 뒤로 하고 시골길을 달려 가 산기슭에 있는 조그만 마을로 갔다. 우리는 택시에서 내려, 최 형제가 한 마을 사람과 말을 했다. 그는 우리에게 김 진구가 마을에 살고 있으며 들판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택시 운전사가 그를 찾아 보겠다고 제의하여 그를 우리에게 데리고 왔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나는 왠지 불안함을 느꼈다. 이 사람이 실제로 나의 부친이라면?

택시가 가까이 왔다. 뒷 좌석에는 어린 소년과 노인이 앉아 있었다. 우리는 서로 인사했다. 노인은 주름투성이었으며 햇볕에 검게 타 있었으나, 그는 정답고 진실한 분위기였다. 나는 그가 나의 부친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의 본명은 김 홍석이었으나, 그는 김 진구로도 알려졌다. 그는 우리를 그의 집으로 안내했다. 우리는 흙길을 걸어가 마당으로 들어서니, 소가 나무에 매어 있었다. 한쪽에는 헛간이 있었다. 집안에는 밀짚 방석이 마루에 깔려 있었다. 우리가 자리에 앉자, 나의 부친인, 그 사람이 내 옆에 앉았다. 그는 나를 보고, 나는 그를 보았다. 한 사람씩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보러 왔다. 우리는 그에게 우리가 찾은 이야기를 하고, 그는 고씨가 말했던 사연을 확인해 주었다.

다음에 우리는 나의 오빠가 되는, 아들에 관해 물어 보았다. 그의 이름은 김 도운이었으며, 대구에 있는 기술 대학에 다니고 있었다. 나의 아버지는 그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가 만날 시간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부친이 전화하고 있는 사이에, 나는 다른 가족들에게 어떤 것이든 가족 기록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그들의 혈통을 기록한 큰 책을 가져 왔다.

#### 복음 토론을 가짐

나의 부친은 우리가 김 도운을 그날 저녁 포항에 있는 한 식당에서 만나도록 주선해 주었다. 그를 만나본 나는 정답고

평온한 느낌을 받았다. 나는 이 사람이 나의 한국 가족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의 형제는 매우 들떠 있었다. 우리가 그에게 이야기해 주고 우리 서류를 보여 주자 몸을 떨었다. 이제까지 그는 자신의 어머니라고 생각했던 분이 실제로는 계모였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첫번 충격을 이겨 낸, 그는 나의 오빠가 된 사실을 기뻐했다.

나는 나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알았다. 우리가 새로운 안내자를 찾게 되거나 가족을 만나게 되었을 때마다, 나는 이상할 만큼 평온함을 느꼈다. 고씨나 김씨에 대한 나의 느낌은 나를 그들의 딸이라고 주장한 다른 가족들에게서 받은 느낌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었다. 우리가 원주에 처음 찾아 가 성공하지 못한 이후로, 나는 내가 나의 가족을 바로 찾게 되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주님께 열심히 기도했다. 주님은 그렇게 해주셨던 것이다.

가족을 찾는 일을 돌이켜볼 때, 나는 주님의 사업을 행하시는 데서 도구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내 뒤에는 실제로 강력한 힘이 있었다. 처음에는 내가 그러한 느낌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 나는 내 가족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나의 사촌들은 선교사들과 공부를 하고 있다. 나는 새로 알게 된 오빠와 일하고 있으며, 나의 쌍둥이 자매를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나는 또한 내가 수많은 조상들을 위해 복음의 축복을 받는 문을 열어 주기를 기다려온 분들의 명단을 찾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

줄리 더너웨이는 브리검 영 대학 정치학과 학생으로 남편, 켈리와 유타주, 프로보에서 살고 있다.

# 눈보라 속에서 얻은 교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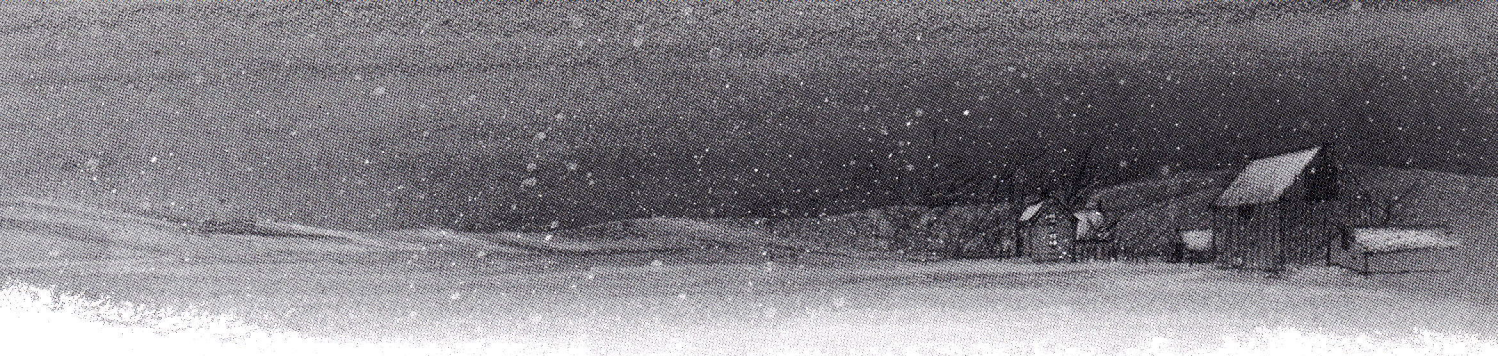
로널드 제이 던

**때**는 한겨울로, 교회 농구 시즌이 거의 끝나갈 때였다. 우리 와드의 청년팀이 첫째를 달리고 있었으며, 최종 게임에서 우리는 전반전을 훌륭하게 해내 우승을 이끌어 나갔다. 나는 교회 농구 시합에서 전반전을 가장 훌륭하게 해내, 이십 점을 올렸다. 그러나, 동시에 파울도 네번씩이나 지적당했다. 한번만 더 파울을 하게 되면 나는 게임에서 쫓겨 나가 될 판이었다.

내가 얻은 점수에 조금 자만해지고 겸허함을 보이지 않던 나는 심판 중에서 한 사람—나에게 네번이나 파울을 선언한 사람—이 고의로 나를 택해 게임에서 나를 쫓아 내고자 하는 것이 분명한 것으로 생각했다. 경기 도중에 나는 몇 번이나—좋지 못한 스포츠맨십을 드러내며—공공연히 그 심판과 관중에게 그가 심판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려 들었다.

후반전 초에 나는 한번 더 파울로 게임에서 쫓겨 나가게 된다면, 공격적인 플레이로 특별히 보여 주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다른 팀에서 패스하는 것을 가로 채서 코트 끝으로 달려 갔는데 그것은 점수 얻기가 아주 쉬운 것이었다. 나와 농구 넷트 사이에서 있는 것이라고는 한 선수 뿐이었는데, 그는 상대팀에서도 가장 키가 작은 선수였다. 나는 바스켓을 향해 달려가면서, 공을 튀기다가 왼쪽 팔꿈치로 수비하는 사람의 턱을 쳐서, 그는 경기장 밖으로 나가 떨어졌다. 그 쪽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쉽게 점수를 올렸다. 농구공이 넷트에서 빠져 나오자, 심판의 호각 소리가 관중의 환호 소리를 가르고 들렸다.

나는 운동 선수답지 않은 행위로 게임에서 쫓겨 났으며, 게임 도중에 줄곧 쌓였던 분노가 공정치 못한 것으로 생각된 심판을 향해 거친 욕설로 마구 폭발되었다. 나는 수건을 바닥에 내던지며 탈의실로 가면서 줄곧 불만을 큰소리로 외쳐 댔으며, 탈의실에서 나는 땀에 젖은 체육복 위에



일상복을 열린 걸쳐 입었다. 그리고 나서, “엉터리 심판”이라고 마지막으로 한번 더 소리치고는, 화가 나서 찬 밤공기 속으로 걸어 나와 아버지의 트럭에 올라 집으로 몰고 가고자 했다.

나는 시동을 걸면서, 눈이 오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으나, 땀이 날 정도로 몸이 더웠고 열이 한창 올라 있었으므로, 코트를 입지 않았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했다.

나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친구집을 찾아 보기로 결심했다. 어찌된 연유인지 나는 도로에서 빠져 나와 지름길로 접어들었으며 이내 처음 보는 곳에 와 있었다. 눈은 펄펄 쏟아지고 있었으며, 차를 몰고 가는데, 바람이 심하게 불고, 눈이 높게 쌓여 갔다. 눈이 하얗게 쌓이자 이내 길이 어디로 나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되었으며, 내 자신이 큰 눈더미 속에 갇히게 된 것을 알았다. 나는 온 힘을 다해 트럭을 눈더미 속에서 빼내 보려고 노력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엔진이 꺼질 때까지 가진 애를 다 써 보았다. 가솔린이 다 떨어졌던 것이다!

나는 어찌 해야 할 것인지 궁리하며, 어둠 속에서 잠시 앉아 있다가, 추위가 심해지면서 현실을 깨닫게 되었다. 땀에 젖고, 운동화도 젖어 코트도 없이 떨면서 앉아 있었다. 하얗게 눈이 쌓인 차가운 들판을 둘러 보던 나는 멀리서 불빛이 깜박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빛은 최소한 일 킬로쯤 떨어진 곳에서 비쳤으나, 입고 있는 옷차림으로 안전하게 그곳까지 이르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다른 대안이 없었으므로, 나는 얼어 붙는 추위 속으로 뛰어 들어 온 힘을 다해 멀리서 미치는 빛을 향해 달려 갔다. 몇 시간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된 후에, 나는 조그만 농가에 이르러 문을 힘차게 두드렸다. 아무 대답이 없었다. 아무도 집에 없었던 것이다.

몹시 떨면서 얼어 붙은 발가락과 손가락과 귀바퀴의

감각도 느낄 수 없게 된 나는, 그 부근에 유일하게 있는 다른 집으로 재빨리 뛰어 갔다. 그 집은 길 아래쪽으로 얼마 안되는 곳에 있었다. 당혹스럽게도, 나는 이 집이 내가 들어가고 싶지 않은 집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바로 “공정치 못한 심판”의 집이었다. 그러나 추위로 기진 맥진한 나는, 자존심을 모두 버리고 문을 두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문이 열리고, 나는 내가 조금 전에 욕을 하고 비난을 퍼부었던 사람의 영접을 받았다.

어쨌든 나는 어떤 반응이 나올지 잘 알 수 없었으나, 나의 입장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지체없이 그 인정 많은 사람은 자기 것과 나의 것으로 두 벌의 코트를 내 왔다. 내가 그의 따뜻한 집안에 있는 사이에, 그는 그의 농장 트랙터와 체인과 가솔린 통을 가지러 혹은 속을 뚫고 나갔다. 우리는 트랙터를 몰고 눈보라 속을 뚫고, 눈더미를 헤치며 내가 버리고 온 트럭으로 갔다. 트랙터를 이용하여, 그는 몇 분 사이에 트럭을 도로쪽으로 끌고 나와, 가솔린을 넣어, 나를 따스하고 안전하게 집으로 보내 주었다.

그 이후 여러 날 동안 나는 나를 것처럼 갑작스럽게 그리고 돌연히 겸손하게 만든 사건의 운명적인 인연에 대하여 자주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 훌륭한 분은 것처럼 추운 날 밤에 버릇없는 소년에게 멋진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그가 따뜻한 집안에서 나와 눈보라 속으로 들어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알고 있지만(특히 나처럼 무모하고 불친절한 사람을 돕는 일에서는), 나는 도움을 필요로 했으며, 그는 나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었다. 그의 모범과 기타 위대한 신권 지도자로서의 영향력은 결국 내가 생활 태도를 바꾸고 선교 사업과 성전 결혼으로 인도하는 길을 따라 가는 데 도움이 되었다. 언제든지 그 일을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다. □

